

형성의 시기이다. 당시 서울대 김정훈, 홍원표, 세종대 김성중 동지 등 3인이 양군모 탄생의 주역이다.

② 서울지역의 몇몇 한정된 학교를 중심으로 단순연락체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역량타산 및 동원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시기로, 주로 향후 투쟁을 함께 결의하는 수준에서의 모임이 몇 차례 진행된다.

2. 조직 정비, 체계화 시기(3.6 - 4월 초순)

① 3.14 석방자 중 징집대상자 환영대회(40여명) 및 토론을 거쳐 서울 외대와 경북을 축으로 하는 전국단위 의 연락체계를 갖추는 시기이다.

② 1차로 상근자를 늘려 안정된 상근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3.6 출소자들 중 일부의 결합이 있었을 뿐 획기적 강화를 이루지 못한다.(외대 김의연등 결합) 그러나 3월말 4월초 86학번 5 - 6명(오기형, 조연진, 김영진, 유계흠, 신상엽 등)의 결합으로 상근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었다. 상근조직체계는 조직부, 상층사업부, 언론반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3. 본격활동 1기 (4.2 - 5.12)

① '단기속도전'의 모델로 임시국회 전후 민주당 농성이 채택되었다.

② 단순연락체계를 조직역량의 동원, 운용체계로 전파시키고 미조직 학교, 지역을 개척하며 재정 및 집회참석을 가능케하기 위한 활동체계로 서울과 지방을 분화하고 학교 및 지역책임자를 세우는 시기이다. 이때 동력을 가지고 결합된 학교로는 서울대, 외대,

경희대, 한양대, 명지대 등이다. 이들 학교 대부분은 학내에서 오명 및 국수등을 팔며 수익사업을 벌여 초기 양군모 재정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다.

③ 단기속도전의 모델하에 초기에 선동식의 조직화 및 조직운영은 장기화에 약할 수 밖에 없었고, 활동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가능성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 성원들에 대한 차분한 내부토론과 삶에 대한 고민토론이 중요하게 나섰던 시기이다. 이는 중앙 상근의 조직사업에 대한 역량의 투영 및 세심한 방침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기인한 측면 또한 존재한다.

4. 본격활동 2기 (5.13 - 6.8)

① 단기속도전 모델에 따른 내부 동요를 제어하고 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긴장감을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조직방침이 요구되었는 바 민주당 농성과 단식을 결의하게 되었다. 약 10여일간의 농성을 전개하고 단식에 돌입(김정훈, 백종민, 김우석, 김영진, 김성구, 이현찬 등 9인)하였으나 회원 및 지지역량 강화의 뚜렷한 대안을 가지지 못한 관계로 3일만에 단식을 즉자적으로 해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농성해산전에 제안되고 결의한 것은 새로운 집중을 위한 분산 시기 활동지침-재정확보투쟁, 교수투고-이었다.

② 열악한 재정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상근자들이 300만원의 빚을 모아 재정에 충당하는 모범을 보였으며, 한

초창기는 상근역량 안정화와 학교 및 지역역량 확대에 중심을 두는 시기이다

총련 출범식에서 500만원의 수익목표하에 장터를 열었으나 16만원의 수익에 그치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③ 그러나 양군모 활동의 성격상 한계에서 기인하기는 하지만 각 학교 성원의 관심과 창의를 역량화시키는 노력과 방침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상근사업과 각 학교 성원들간의 괴리가 조금씩 드러났다.

5. 결실을 향한 지구전(6월- 7월) 선별처리 반대를 포함한 원칙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었고 차분한 상황분석, 예측을 통해 내부의 동요를 제어하고 보름에 한차례씩 4회에 걸친 총회를 거쳐 영장연기대책과 결부되어 조직력을 유지시켰다.

6. 6. 7 - 9월

① 병무청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국방부에 올려 발표만을 기다리는 시기로, '해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자체의 무장을 해제하는 오류를 범했다.

② 조직은 뚜렷한 전체활동의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연락관계 이상의 수준을 갖지 못했다.

③ 10월초 국방부 부결발표때까지 조직력은 급속히 느슨해지는 시기이다.

④ 상반기에는 국방부의 반동공세에 의해 해결이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병무청의 해결확약등 몇가지 계기를 통해 양군모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한데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상반기의 주요동력은 몇몇 학교와 소수지역에 국한되긴 했지만 매우 헌신적인 투쟁으로 하반기 투쟁을 결의할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었다. 특히 지방의 경

우 경남의 이상원 동지와 경북의 김대하, 권종택 동지, 충북의 정현태, 김성구, 김상현 동지, 부산의 이수영, 정승안 동지등이 지역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B. 하반기(10.8 -)

1. 10월초의 상근역량 확충: 국방부 부결발표 이후 조직외해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반기 투쟁의 판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되었다. 약 20인의 사람들이 패배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상반기 투쟁의 경험을 거울삼아 반격투쟁의 그림을 차근차근 그려나갔다. 기존상근과 이훈구, 배진호, 김원철, 이상봉, 오인근 동지 등의 91년 강집대책위 팀과 노태술, 정재원, 류지은, 윤상국 동지 등 영장반납팀이 합류를 결의하였다. 이 역량이 후에 농성투쟁의 내용적 지도역량 및 집행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10.8 동국대에서 중앙상근에서의 결의를 기층으로 전파하기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다. 패배주의를 불식시키고 상반기에서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반기를 '부흥회'의 분위기에서 결의하는 장이 되었다.

2. NCC 농성(10.18 - 11.14)

(1) 7 - 9월간에 흩어진 조직력을 복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서울의 경우 1주 1회의 학교책임자 회의를

통해 10 - 13개 학교가 복구되었고 지방의 경우 직접순회를 통해 조직력 회복에 박차를 기했다. 항공대(인기현), 경희대(최동섭), 고려대(황지태), 외대(홍영철), 한양대(김희준), 서울대(김인식) 등의 학교책임자가 패배의식을 지우고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였으며, 연대(임상순)와 숭실대(김철우, 박영필), 성대(최준석), 서강대(최한철), 홍익대(박기철) 등이 새롭게 결합한다. 이 시기에 고대동지들은 아침 7시에 모여 상호점검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모범을 보여 많은 힘을 주었다. 김성중, 안병일, 이현찬, 김부곤 동지는 느슨해진 지방역량을 복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흩어진 회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결집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활동이 이후 1차 집중시기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발휘했음을 증명한다. 11.1 당시 가장 모범적으로 기층을 일구고 있었던 고대에서 추모제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총회에서는 상근의 논의사항을 보고, 논의하는 장이기보다는 각자의 삶에서 양군모 투쟁이 갖는 의미와 소감등을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하여, 모두에게 매우 큰 감동을 안겨주는 자리가 되었다.

(2) 20여명의 상근농성대오는 헌신적 노력을 통해 향후 민주당 농성을 대비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는 선봉대 역할을 하였다. 노태우 동지는 지켜있는 많은 동지들에게 힘을 주기위해 '뽕주의'를 창시하여 미친듯이 일하는 모범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3) 교수단원과 양군모의 밤 준비로 사업 속에서 조직력을 복구하고, 국회, 대학교협 등 상층사업으로 정치지형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는 시기이다. 건대와 동국대, 서울대는 경쟁적으로 교수서명작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항공대 인기현, 이병욱 동지는 전체 교수 절반의 서명을 받아내었으며, 마산의 이상원 동지는 모교는 물론 마산, 창원외 다른 학교 교수님들의 서명도 모두 받아 총 100여장을 넘는 서명을 받아오는 모범을 보여 다른 동지들에게 힘을 주었다.

(4) 상근 조직체계는 사회대책위, 국회반, 조직부(서울, 지방), 언론반(소식지 팀 분화), 사무국(양군모의 밤 준비팀 분화)으로 편성되었다.

C. 마포 민주당 (11.15 - 11.23) ; 1차 집중시기

(1) 선거와 시험이라는 어려운 객관일 정속에서 청원소위에서의 능동적 대응을 목표로 40여명 남짓의 사람들이 농성에 돌입하였다. 1,350의 교수단원과 165명의 국회의원 서명의 성과로 내적으로 상당히 고무되는 시기이며 청원소위 승리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기이다. 목표를 초과하는 사업의 모범은 이 시기부터 확산, 정착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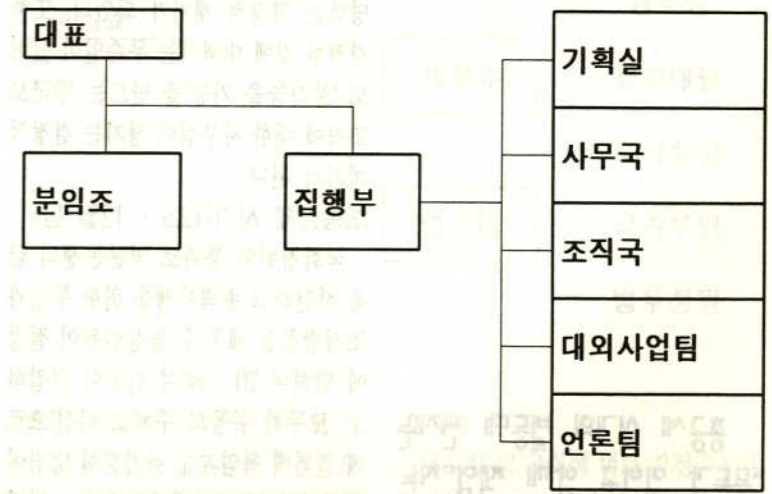
(2) 이전의 '상근 ↔ 학교 및 지역책임자'라는 빈약한 조직체계를 '집행부 ↔ 분임조'형식으로 조직공간을 든든하게 마련하는 시기이다. 지역적 연관성에 근거해 서울 5개조, 지방 4개

조로 총 9개조(1조:서울대, 동국대, 숭실대, 중앙대, 단국대. 2조:외대, 경희대. 3조:한양대, 건국대. 4조 ; 고대, 성대. 5조:항공대, 연세대, 홍익대. 6조:충남북, 경기남부. 7조:전남북. 8조:인천, 경기동부. 9조:경남북)를 나누어 모든 사업과 생활 투쟁에서의 책임성, 기동성, 집중성을 확보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인천의 동지들이 가세하고 7조 남총련 동지들의 활약에 힘입어 힘있는 농성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20에서 40명으로 갑자기 늘어난 대원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힘들고 보람있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배식반장 김원철 동지이다.

(3) 집행부는 각 부서별로 발전하는 투쟁의 요구에 맞게 농성대오 내에서 사람을 결합시켜 내용적, 형식적으로 보장하게 되고, 조장회의를 통해 중심적 집행체계를 형성한다. 조장회의

쟁방향등에 대한 깊은 토론을 전개하는 중심체계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NCC에서 마포로 농성을 이동하는 과도기에 조직질서의 전반적 변화의 과정에서 이전의 상근들중 지위와 역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분임조가 모든 논의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던 했지만 안착화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 전반적으로 내용적 지도의 공백이 잠시 있기도 했다. 이러한 지도의 공백을 메운것이 바로 '양군모의 밤'과 12.4대집회로의 대오전체의 총력집중이었다.

(4) 이 시기 조직목표는 1,350여 교수단원과 청원소위 승리로 고무된 내부 힘을 2차 집중시기와 '양군모의 밤'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더불어 88이상 100인의 결의결사를 이끌어내기 위



는 김정훈 대표가 직접 주재하에 모든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의결과 투

한 조직국의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노력이 후에 70 -

국회성원의 여야입의 통과는 양군모 투쟁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이다

80인 가량의 농성대오 유지의 보이지 않는 거름이 되었다.

D.여의도 민주당사(11.24 -)

(1) 2차 집중시기 ; (11.24 - 12.4)

분임조 체계의 안착화를 이루었고 1차집중시기에서 얻은 신심을 바탕으로 양군모의 밤과 12.4대집회로의 역량총집중의 시기였다. 또한 농성인원에서 약간의 확대와 더불어 지지역량의 대규모적 확대의 시기이다.(12.4집회 1,000명 참가) 충북동지들은 약 150여명의 학교후배들을 집단적으로 상경시키고, 1조 서울대,동국대,숭실대 및 인천동지들의 대단한 활동력에 힘입어 집회의 성공적 개최에 가장 큰 공헌을 한다.

양군모의 밤과 12.4집회에서 대 성공은 분임조와 집행부를 골간으로 하는 농성 조직질서의 강위력함을 증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일이 있어도 '불가능을 가능'을 만드는 양군모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2)총공세 시기(12.5 - 12월 말)

국회청원의 통과로 명분논쟁의 끝을 선언하고 총력투쟁을 위한 투쟁과 조직방침을 세운다. 농성인원이 절정에 달하여 70 - 80여 인원이 결집하고 '모두가 활동의 주체로 나섬'으로써 결과에 책임지는 조직강화 방침이 구현되었다. 조직체계상에서는 전반적 정치여론전과 신속한 논의네트워크,그리고 모든 사람을 총력투쟁의

각 전선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특위 성격의 별동대를 긴급하게 꾸린다.

이 별동대(국회;정재원,이상원,이수영,정명수 등,대교협;박규환,안병일 등,원로;배진호,이재석 등,청와대;정순구,노태술,김성구 등,총리실;배진호 등,국방부;박영필,김우석 등,병무청;김성중,이승규 등)에는 약 30 - 40명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전체가 큰 덩어리의 싸움을 만들어 나갔다. 쌀 투쟁과 겹쳐 양군모 사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자 여러 차례의 집회를 제기하면서 전담부서로서 전투기획단(김우석 단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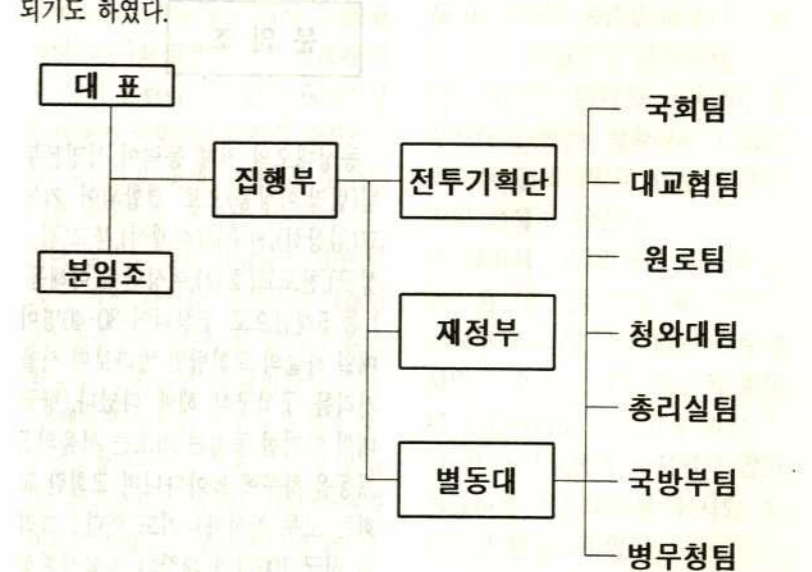
전기단의 기획하에 12.6부터 국방부 출근투쟁과 12.14국방부 앞 투쟁(300명 참가,숭실대에서는 모든 실무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인천대에서는 약 100여명의 후배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해주었다.), 수차례의 거리 선전전(김성중 감독의 지휘하에 명동 및 종로동지에서 수복을 입고 피켓을 들고 포승줄을 묶어 양군모의 이미지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문화역량을 총동원하여 양군모 내용으로 거리연극을 시도하기도 했다) 등이 집행되었다.

또한 학번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인간적인 끈을 다양하게 엮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85,86의 원로회의를 시초로 87,88,89,90학번등이 차례로 학번간 단결을 도모하며 학번모임을 결성하여 농성장의 분위기 일신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특히 87들 중심으로 엮어진 '화류계'는 농성장의 문화생

활을 윤기있게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2.6일부터 진행된 국방부앞 출근투쟁은 대적전선을 공고히 하고,농성대오의 내적결의를 고양하기 위해서 1월중순까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여인두 동지의 사회로 진행된 국방부 앞 출근투쟁은 양군모의 끈질긴 면모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새로 임명된 이병태 국방부 장관은 양군모 회원들의 출근투쟁을 보고 따뜻한 보리차를 매일 보내줘 이것이 우리에게 물을 먹이려는 암시인지, 아니면 화해의 제스처인지 한때 논쟁이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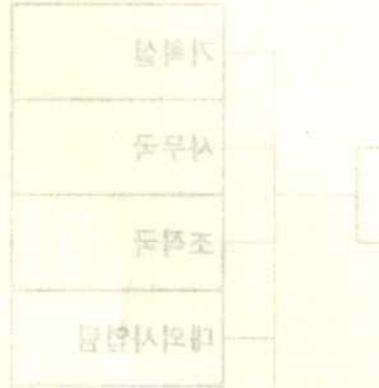
법과 내용들이 제기되었다. 국방부 앞 단식과 군입대 거부선은 혹은 입대선은 등의 모험주의적 제안이 쏟아졌지만 정치여론전을 기본으로 하는 투쟁노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후로 논의를 보류하게 된다. 백병전에 대하여 이와 같은 모험주의적 제안이 쏟아졌던 이유는 12.18임시국회 회기마감 전까지 투쟁을 정리한다는 내부적 시한을 두고 있었고, 향후 투쟁방향에 대한 뚜렷한 제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백병전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국방부의 결단을 결정적으로 강제하는 주체의 활동과 투쟁의 내용으로 출근투쟁 이외의 다양한 방

(3) 1월 초 - 1. 21 대교협 및 국회에 대한 간접추동과 국방부에 대한 전선을 넓히기 위한 필요성에서 2,000인 성직자 서명운동



총공세 시기의 별동대 편제는 "모두가 일하고 함께 책임"지는 조직방침의 구현이다

과 총학생회장단의 촉구서한 발송작업등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이다. "종교인 서명작업이 대적전선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매우 많은 논란이 전개되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쨌든 추진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그 특유의 양군모식 사업기풍을 발휘해 가열차게 추진하기 시작한다.

더불어 재정자립의 요구에 따라 재정사업단이 발족되고 출판매, 출판매(총매출액 3천만원) 등을 통한 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하였다. 이때 재정담당으로 결합한 유성호 동지는 운상국,이인안 동지와 함께 투쟁의 물적토대로서의 사업자금을 술한 방법을 통해 모아냄으로써 양군모의 자립자활력을 빛내기도 하였다.



농성대오의 전체 동력이 서명본부팀(팀장:이상봉)으로 결합되어 기독교(김상현),천주교(이재석),불교(김성구),천도교(호남),여성단체(이해동)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30-40명이 매일 하늘의 교회탑만 바라보며 서울 거리를 구석구석 헤매 다녔다.(항공대의 인기현 동지는 비오는 서울의 5개동을 하루에 돌아다니며 교회란 교회는 모두 찾아다니기도 했다.) 그리고 전국 100여개 대학의 총학생회장단(이태문,손장현 동지)의 국방부 앞 촉구서한 발송을 추동하였다. 이와 같이 대대적으로 벌인 종교인 서명사업과 기자회견, 그리고 총학생회장단의 촉구서한 발송은 결국 국방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되었다.

(4) 1. 22 - 2. 16
국방부의 전원 18개월 방위처리 기도가 노골화되는 시기(상반기에 병무청의 선별처리 기도와 9월말 국방부의 부결발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양군모는 동지에 대한 가장 순수한 의리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극복을 숙의하고, 단결된 투쟁으로 극복할 것을 결의한다)로 내부적으로는 선별처리,18개월 방위안 반대의지를 천명하며 완강하고 탄력있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1.28 병무청 앞 집회(250명 참가)등으로 표출하고 이전에 결속된 총학생회 등에 민자당의 백남치,신상우 의원과 국방부 등에 격려, 촉구성 전보사업을 추동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서울산업대,서울여대,서

울대,동국대 등)
또한 국방부의 18개월 방위안에 대해 응해 조직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두고 3박4일을 꼬박 토론하여 최종적으로 '6개월 방위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민자당과 국방부에 6방위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2.16 국방부의 기습적인 언론발표가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대교협외 총장님들이 막판에 가세해주지 못하고 말을 빼는 바람에 국방부의 반동을 미처 막아내지 못했다는 후일의 평가가 뒤따른다.
(5) 2. 17 - 2.27

국방부의 기습적인 '27세 이상 면제와 그 이하 18방위안'이 발표된 직후 잠시 혼란이 일어난다. 60%이상 면제라는 국방부의 허위적 숫자 조작에 대응하고 실제 구제폭을 넓히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낸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미 굳어진 편의를 전제하고 적잖이 농성장을 이탈한다. 한때 가장 많은 농성을 전개하던 88학번들의 경우 "선배에게 부담을 씌우지 않기 위해" 농성장을 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한편으로는 투쟁의 대안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 현상이라고 평가된다. 분임조의 운영이 힘들어진 위와 같은 조건을 양군모는 학번간의 단결을 기본으로 조금씩 극복하고 향후 사업들을 고민한다.

급격한 동력의 이완을 막는 한편 1년동안 도와준 지지자들에게 대한 답례의 형식으로 제2차 양군모의 밤이 건

국대에서 진행되고, 90학번들의 철저한 준비로 2.3 ~ 5까지 낙산에서 약 60여명의 참가하에 MT를 떠나 그동안 쌓인 피로를 씻고,양군모 정리 이후의 대안으로 '학번별 양군모 동지회'를 결의한다.

◆ 조직력 확대의 흐름에 대한 평가

- ① 하반기 반격투쟁을 결의하며 보강된 15명의 상근역량과 영장반납 투쟁을 결의한 4명의 동지가 실제 이 싸움의 총대를 메었다고 볼 수 있다. 석달간의 무장해제 상태에서 카운터 펀치를 얻어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들의 강력한 결의야말로 이후 투쟁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
- ② 앉아서 기다리거나 극단적 행동투쟁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농성이 아니라, 농성대원 모두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책임적 활동을 광범위하고 끈질기게 벌인 것이 긴 농성투쟁에서 지치지 않고 견결하게 농성대오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 ③ 시기적 요구에 맞게끔 조직체계를 발빠르게 전화하거나(별동대,종교사업팀),새로운 부서(전투기획단,재정부)를 만들어내는 임기응변이야말로 50명이상의 농성대원의 이탈을 막고 전선의 지속적 상승발전의 밑거름이었다.

12.6부터 진행된 국방부
출근투쟁은 양군모가 아니며 그 누구
할 수 없다

이들은 특히 각 농성주체들의 자각적 참여와 책임있는 자세를 이끌어내는 계기들로 작용한 측면도 존재한다.

이들 특히 각 농성주체들의 자각적 참여와 책임있는 자세를 이끌어내는 계기들로 작용한 측면도 존재한다.

④ 대담한 사업계획과 과감한 집행등을 통해 승리의 신심을 얻게 되었으며, '결정하면 꼭 하고야 만다'라는 양군모식 조직기풍의 원천이 되었다.

⑤ 여러 계기를 통한 착실한 지지역량 확보는 양군모를 하나의 거대한 역량으로 만들어 내었다. 핵심보조역량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양군모의 밤과 12.4 집회, 종교계 서명운동 및 총학생회 촉구서한 발송작업 등을 통해 광범위한 잠재적 지지역량을 외화시켜 내었으며, 수시로 제기되었던 집회등에 조직동원된 열성지지자들이야말로 양군모의 든든한 외곽세력이었다.

⑥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체력의 한계등 적잖은 문제가 있었지만, 투쟁속에서 맺어진 끈끈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학번모임 등이 활성화되면서 농성장기화 등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일조하였다.

III. 양군모 조직과 농성투쟁의 관계

1. 양군모 투쟁에서 농성투쟁이 갖는 의미

① 조직체계의 측면에서; 상반기 동안의 조직사업의 과제는 중앙상근을 튼튼하게 보강하고 기층역량을 확대 강화하는데 있었다. 농성과 단식,수차례의 집회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두리에 결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앙상근의 조직책임자와 각 학교 및 지역책임자를 통한 연락선만을 가지고 그 결속력이 강화되는데는 일정정도 한계가 따랐다.

이러한 상근과 기층역량과의 결합력의 약점을 극복하는 계기가 하반기 장기농성 돌입이었다. 농성대오의 안착화를 위해 분임조를 나누어 책임성과 집행력을 강화하는데 일차적으로 성공하였다. 다양한 사업을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그릇을 마련하고 새롭게 사람을 배치하고 함께 점검하는 일상적 작업을 통해 조직을 내실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② 집중투쟁의 측면에서; 모두가 서로 다른 처지에 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집중투쟁은 결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집중투쟁은 일정한 시기에 주체의 모든 역량과 지원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쟁대상에 대해 다양한 공약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반기 투쟁에서 쓰러린 고배를 마신 양군모 중앙상근과 기층의 동지들은 보다 강력한 투쟁전술로서 국방부의 반동공세에 대한 맞대응을 구사할 필요성에 합의하고, 이전의 어느 농성투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장기농성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10. 18 이후 160일 가까운 기간동안 양군모는 그

세를 더욱 확대하고 특유의 자활력에 힘입어 국방부에 대한 대반격을 시도해 결국 정치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③ 양군모 회원들의 변화의 측면에서; 상반기에는 투쟁의 명목상 주체는 530회원 전체이되 실질적 주체는 중앙상근이 도맡아하는 비정상적 모양이었다. 상반기의 중앙상근 ↔ 각 학교 및 지역책임자라는 조직체계에서는 회원 모두가 양군모의 정치적 의의와 투쟁내용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미흡하게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약점이 현실적 난관으로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군문제 해결'에 대해 협소한 이해관계 중심으로 바라보거나 중앙상근에 대해 지나친 기대의 심리도 병존하였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하반기 조직사업의 초점으로 맞춰졌으며, 농성투쟁은 그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대규모 농성투쟁은 수많은 토론을 통해 잘못된 관점을 교정하고, 다양한 투쟁의 과정에서 승리에 대한 낙관과 동지에 대한 믿음,그리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내는 산 교육장이 되었다. 양군모의 대규모 장기농성은 바로 사람의 변화,성숙을 통해서만이 조직의 힘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전형적이 모범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임에 틀림없다.

2. 양군모 조직과 다른 조직의 차이점 및 특성

(1) 양군모는 비교적 명료한 쟁취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양군모는 병무행정을 시국사범 탄압에 이용케 한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정상적 사회복귀'를 쟁취하려는 비교적 명료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즉,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서 근성을 가지고 투쟁할 수 있는 내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는데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꼭 쟁취될 수 있다라는 확신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초창기와 하반기에 적잖은 사람들이 직접결합을 꺼리는 원인이기도 했다.

(2) 사람의 변화,발전을 기본으로 조직역량을 키워나갔다

양군모 투쟁의 정당성은 이미 상반기의 경험을 통해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과는 무관하게 변화한시기적 조건하에 국민정서상의 벽을 넘어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함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하반기 투쟁을 일구면서 제기된 제일 첫번째 과제가 싸움이 끝날 때까지 대규모 농성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특히 나이가 많거나 결혼한 선배들) 모범으로 대규모 농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 투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모두가 가지게 된 결정적 동기는 11. 22 국회청원소위원회에서 정치적 승리였고, 양군모의 밤과

150일 농성투쟁은 양군모 투쟁 3박자를 완성시켰다

12.4 대학로 집회에서의 성공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농성대원들은 상반기 국방부 부결발표 이후의 패배주의를 말끔히 씻어내고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양군모 고유의 조직기풍을 갖게 된다. 그리고 서로간의 믿음과 양군모 조직에 대한 강한 자부심 및 집단주의를 토대로 많은 어려움과 투쟁의 고비들을 현명하게 대처해냄으로써 불패의 조직력을 갖게 된다.

(3) 기본역량의 활동에 의거해 든든한 외곽 지원세력을 현실화시켜 내었다

양군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반반이라고 바라보았다. 정치적 시각이든 인도적 시각이든 간에 양군모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갖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체적 계기를 통해 표현하지 않는다면 양군모의 현실적 지원세력으로 볼 수 없다. 양군모는 그러한 잠재적 지지역량을 농성대원의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통해서 국방부를 포위 압박하는 현실적 힘으로 역량화시켜 내었다. 즉, 정치여론전을 기본으로 하는 투쟁노선이 제시하는 다양한 사업과제를 약 50여명의 농성대원들의 눈부신 활동에 의해 외곽에 든든한 후비대를 세워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주체역량의 구조는 매우 다양하다. 83학번 선배에서부터 91학번 후배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양군모 투쟁을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투쟁을 끝까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88이상의 선배들이라고 판단 하였다. 바로 이들을 튼튼한 기본역량으로 묶는 것이 농성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관건이었다. 실제로 농성 전기간을 통해 가장 강한 결합력을 보인 사람들은 88이상의 회원들이었으며, 이들의 헌신적 투쟁이 결국 성공적인 농성투쟁을 전개하는 핵심적인 동력이었던 것이다.

(4) 조직운영의 측면에서

양군모 조직은 특유의 기동성과 탄력성에 그 특징이 있다. 투쟁의 판을 점차 키워나가면서 더욱 큰 그릇을 객관적으로 요구받게 된다. 일부 집행부가 이를 전담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모든 농성대원에게 위임분공하고 조직 체계를 다양하게 분화하고 전문화 시키고, 전투적으로 수행하는 투쟁분위기를 일구면서 양군모 조직은 탄력성을 얻게 된다. 이에 힘입어 집행부만이 고민하고 사업하는 상반기의 조직운영의 약점을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짐으로써 고도의 창발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 조직국 평가

상반기에 서울과 지방으로 분화되어 조직책임자에 의해 연락과 간간이 있었던 집회 및 총회에 의해 운영되었던 것에 반해, 하반기에는 민주당 농성을 계기로 집행부와 회원들간의

직접결합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조직력을 한껏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

NCC농성기간에 김성중 동지를 비롯하여 안병일, 김부근, 이현찬 동지의 지방순회방문은 흩어진 지방역량을 결속하는데 가장 큰 역할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낸 고려대,항공대,서울대,경희대,외대,동국대 등의 모범적인 학교책임자들의 힘이 매우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영장반납팀 중 윤상국 동지에 의해 개척된 건국대,산업대의 부분역량, 이재석 동지에 의해 결속된 한양대 역량,이상봉 동지에 의해 결속된 서부지구 부분역량 등이 마포 민주당사 농성을 가능케 했던 힘이였다.

마포 민주당으로 확대농성을 돌입한 이후 조직국은 한양대 조우석 동지와 인천의 정수영 동지의 가세에 힘입어 체계적인 농성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조우석 동지는 힘에 겹치지만 농성대원 전원에 대한 미시적 관리와 분임조 안착화를 위해 분투하고, 정수영 동지는 어머님 대책위를 위해 노력하여 약 10여분의 어머님의 힘을 조직화하는 성과를 가져온다. 후에 각 학교 지지세력을 모아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합한 이태문,손장현,김용건 동지의 가세는 실무적 하중에 항상 압박당해온 조직국에 윤택유와 같은 작용을 한다.

조직국은 이처럼 내부역량을 수시로 보강하고 역할분담을 철저히 하면서 조직체계 운영에 있어서 '인체의 모든 곳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IV. 총괄

530명 회원중에 29.7%구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긴 하지만 투쟁을 통해 거둔 정치적 승리임에는 분명하다. 1년여의 기간을 줄곧 하루같이 투쟁했던 양군모 동지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1년을 넘게 양군모를 이끌었던 중앙상근자는 물론이고 함께 투쟁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은 뼈아픈 좌절과 시련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들도 많았고, 넘기 힘든 고비들도 많았다. 특히 10월초의 국방부 부결발표는 매우 치명적 카운터 펀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의 좌절감을 극복하고 다시 처음부터 투쟁을 추스리며 현재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동지들에 대한 서로간의 강한 신뢰이다. 그리고 양군모에 대한 모두의 자부심과 투쟁속에서 일구어낸 집단주의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였다. 양군모는 이런 내적 힘을 키워내는 것을 제1적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사업에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직을 탄력적으

88학번 이상의 회원들은 농성투쟁의 핵심적인 동력이었다

로 운영함으로써 하반기 160여일의 장기농성투쟁을 성공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양군모의 기본동력은 수차례의 집회와 총회등의 계기를 통해 결속된 역량까지 150여명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하반기 농성투쟁에서 장기간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농성장을 사수하며 투쟁했던 70-80여 동지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양군모 투쟁의 주역이다. 학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군모의 성격과 정세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기다양한 투쟁을 창조적으로 계발하고, 저마다 유감없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긴 농성투쟁을 승리적으로 전개하였다. 어느 한사람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찾아 집단의 이익에 복무하면서 보이지 않는 모범을 수없이 창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양군모를 정체하지 않고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

이었다.

양군모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처음으로 투쟁의 포문을 열면서 1년을 넘는 기간동안 주체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며 저들의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다양한 투쟁을 통해 승리를 거두었다. 투쟁의 방식에 있어서나,조직운영의 측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대규모 장기농성을 펼치면서도 80년대의 고리타분한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뛰어다니고 모두가 책임지는 활력있는 농성투쟁을 전개하였다. 민민운이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는 현재 양군모는 이러한 긴 기간동안의 모범적 투쟁을 통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심을 안겨 주었다고 자부한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투쟁다운 투쟁을 보여줌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양군모는 '승리'와 '모범'의 두 단어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양군모

투쟁다운 투쟁을 보여준 양군모 '승리'와 '모범'으로 기억될 것이다



양군모 자료집 86

활동보고와 평가.3

언론사업 활동 경과 및 평가

1. 언론사업 제기배경

독재권력에서의 언론매체는 대개 권력의 정치선전의 기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과거 우리나라에서의 언론매체는 직필로써 독자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보다는 국가권력의 사수에 묶여 자연스럽게 권력자의 세계로 흡수 되어버리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곤 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이란 권력에 의한 법적,제도적 장치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기사나 보도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권언유착이 날로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당했으며 언론은 시장경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민주언론을 지향하는 많은 언론인도 있기는 하지만 권력의 입김을 벗어나 정론으로 사회전반의 여론을 형성해 들어가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 내기에는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의 현실속에서는 민중들이 언론을 신뢰하면서 자기주장을 사회에 호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 밖에 없었다.

양군모 자료집 87

대중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청년학생 양심수들이 주장해온 부당징집철폐의 문제는 김영삼정권의 과거청산과 개혁이라는 일련의 정치과정속에서 수배자,전교조,해고자문제 등과 같이 6공시대 인권의 상흔으로서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였으나, 투쟁의 정당성이 제도권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어 여론을 형성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의 언론사업은 기존의 재야단체,학생운동조직의 수동적인 언론사업을 탈피하고 정치여론전을 중심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으로 제기되었다.

이제까지 재야단체나 학생운동조직의 언론사업은 대변인 1인의 역할로서 한정 지워지거나 중요한 사안이나 투쟁이 제기되었을 때만 이루어지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언론사업은 매우 수동적이고 일회적인 경우가 많았고 정치적 힘을 좀더 무게있게 실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에 연락하고서 기다리는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였다. 또한, 전문적으로 언론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의 부재로 인해 일상적인 언론사업을 통해 사회여론을 지속적으로 형성시켜 내기엔 다소 무리가 따랐다.

여,야등 제도정치권을 보면 대외홍보국이나 대변인실이란 언론담당 전문기구를 두어 기자회견 하나를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감을 배가시켜낼수 있는 언론사업이 정착되어 있다. 언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촌지사건을 일으킬만큼 지대한 관심과 공을 들인다. 물론 이것이 권언유착의 일면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언론이 사회여론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홀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정치여론전을 기본으로 두었던 양군모 언론사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부당징집철폐와 정상적 사회복귀에 대한 정당성을 선전하여 광범위한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
둘째, 첫째 목표의 성과를 사회적 근거로 제시하여 정부(국방부)를 압박해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셋째, 530여 회원중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과 투쟁을 공유,결의한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언론의 한계로 인해 다루어지지 못하는 내용들을 자체 언론(소식지)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한다.

이러한 네가지의 목표를 가지고서 양군모는 언론담당 전문기구를 구성하여 정치여론전을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하였다.

II. 양군모 언론사업에 대해 매체에 따른 몇가지 부분 (일간지,주,월간지,기타)

1.1993년 3월 ~ 1993년 10월 8일(병무청 국정감사)

1)일간지

이 시기 일간지등 언론사업은 대내외적으로 양군모의 탄생과 더불어서 투쟁의 근거를 제시하는 초반 격돌전으로써 투쟁의 쐐기를 박기보다는 선전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속에서 일간지 기사화 사업은 자갈밭을 옥도로 일궈 내어 써 까지 뿌려야만 하는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권초기 과거청산과 개혁드라이브 라는 전반적인 정세의 호조권 속에서의 양군모 문제는 군문제라는 특수한 사안에 기초하여 많은 언론사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적합하였다. 양군모 회원들 역시도 보기 드물게 수많은 투쟁을 합법적으로 이끌어 병무청 항의방문과 집회,평화행진으로 좋은 반응을 갖게 하였다. 그 예로 5-6회의 한겨레 신문의 사건기사, 사진기사를 비롯하여 여러 일간지 등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고,그 결과 양군모 투쟁의 정당성을 널리 선전함과 아울러 전국의 흩어져 있던 회원들의 결집을 이루어 내며 김영삼 정권의 5,6공에 대한 과거청산이 문민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한 예로서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부당징집이 여전히 존재 한다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 할 수 있었다.

그리고,국회청원의 시기에 조선일보,동아일보 하단 전면광고는 주요 일간지에 엄청난 비용의 광고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조직적 결속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사회여론의 환기를 통한 정치적 압력을 정부에 가하기 시작하였다.또한, "부당징집 철폐"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한겨레신문 생활광고를 각 지역조직 명의로 계속 만들어간 것은 회원 상호간의 유대감 강화와 연결망 구축,투쟁을 공유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각계각층의 지지세력을 결집시켜내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후 양군모 투쟁이 결코 회원들만의 군면탈을 위한 집단이기주의적인 투쟁이 아니라 불행했던 군사독재 시절이 만들어낸 쓰라린 과거이며 그것은 문민정부라 자처하는 김영삼정권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정치,사회적 과제임을 인식 시켰다. 그리고,이승백 회원의 아버님, 이상준 외국어대 교수님의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독자투고는 국민적 인식의 폭을 확대 시켜내는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였다.

그러나,초기 양군모 언론사업은 책임주체 일인이 전담하다보니 구체적이

언론을 신뢰하면서 자기주장을 사회에 호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고, 세밀한 사업을 기획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기자들과의 접촉이 일회적일 수 밖에 없었고 지속적인 언론사업을 기대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상반기 언론사업의 여러 성과들은 책임주체에도 상근자들의 학연과 지연을 통한 헌신적인 노력이 보완 되면서 하반기 언론사업의 토대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2)주간지,월간지

주간지, 월간지는 여타 일간지와는 달리 시기적절하고 신속하게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사건기사가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양군모투쟁의 본질상 차츰 때늦은 기사가 되어버릴 수 있는 부담감을 안고 있어야만 하였다. 그러기에 주,월간지 사업은 양군모투쟁의 개괄적이고, 중심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한 기획기사와 작업이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주간지, 월간지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주,월간지 사업은 많은 힘을 들인만큼 굵직한 기사가되어 돌아왔다. 말, 업저버,월간중앙,뉴스메이커등의 기획기사가 바로 주,월간지사업의 결과물이었다고 그때까지 상황과 과제를 정리,점검하는 훌륭한 중간평가서였다. 상반기 주,월간지 사업 역시 하반기사업의 토대가 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3)기타(방송국,대학신문,학내여론화 등)

첫째, 방송국사업은 모든 제도권언론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언론통제가 가장 심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활자매체인 신문과는 달리 일회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오히려 신문보다 더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방송국에 대한 보도협조요청은 보통 큰 정치적 사안이 아닐 경우엔 먹혀들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국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과 기독교방송 모 PD의 도움으로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서 3차례 전파를 탈 수 있었고 그것은 방송국에 지레 겁을 먹었던 언론사업 주체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둘째, 애초에 대학신문등 대학 여론화 사업은 일간지와 양군모의 뿌리를 보다 튼튼히 박는 의미에서 주,월간지사업 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회원들의 능동적인 움직임으로 출신 학교를 중심으로 4월과6월 두차례에 걸쳐 두고 또는 지지광고등을 조직화하여 청년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학내 대,소자보 작업등 역시 4월, 6월 두차례에 걸쳐 조직적이고 학생들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일시적이거나 발진적인 측면들을 보여왔었다.

2. 93년 10월 9일~94년 2월

1)일간지

이 시기 일간지 사업은 상반기 사업을 토대로 조직적 한계를 극복해 내면서 3인으로 언론사업의 주체를 마련 하였다. 일간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집요할 정도로 기자들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기사의 양을 상반기와 비교 하였을 때 배 이상의 성과를 가져 왔었다. 이 결과는 93년 10월 8일 병무청장으로 대변되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불가의 입장을 발표한 이후의 수세적 국면을 돌파 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었다. 그러나, 그 해11월, 12월 개각, 쌀시장 개방등의 폭발적인 정세에서 양군모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는 사안이 되었다. 모든 일간지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기사거리가 폭주 하는 상황속에서 부당징집 철폐의 항의방문이나, 집회등으로는 기자들을 유혹(?)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12월4일집회를 예로 보더라도 엄청난 준비와 일천명이라는 인력동원을 한 집회였지만 쌀개방의 문제가 정세의 주요한 사안 이었기 때문에 상대적 사안의 열세로 기사화는 실패하고 내부 조직적 성과로서만 만족 해야했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폭풍우가 몰아치던 시기라는 한계를 넘어 서고자 부지런히 뛰어다닌 결과,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었다. 첫째, 부당징집철폐를 위한 민주당농성이 수 차례 언론을 통해 선전되어 효과를 대증적으로 알려낼 수 있었다. 둘째, 기사결정의 최후의 단계인 언론사 데스크를 공략하기위해 발로 뛰었던 농성회원의 열정을 수 차례 조직화 할 수 있었다. 셋째,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2회의 한겨레신문 하단 전면광고와 각 지역조직, 총학생회의 수차례의 지지광고는 시민들에게 격려의 전화가 올 정도로 큰 성과였다. 넷째, 교수,종교인 서명운동이 제기되어 양군모의 중심적인 사업이 되었을 때 언론 기사화를 통해 서명인을 확대시켜낼 수 있었다. 다섯째, 지속적인 보도자료 배포로 신속하게 기자와의 인터뷰를 만들 수 있었고 언론인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묶어둘 수 있었다. 여섯째, 독자투고의 조직화를 꾸준히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제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부당징집을 철폐하는 것은 정치수배 해제와 전교조 문제 처럼 당연히 정부에서 과거청산의 사안의 사안으로서 해결 해야할 과제임을 정치,종교,학계를 비롯하여 전 국민적으로 확인 시켰다.

그러나 하반기 언론사업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측면도 없잖아 있었다. 첫째, 국방부, 경찰서 등 관공서 출입기자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어 각 일간지 1-2인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언론인들과의 인터뷰가 3인의 주체로서도 불가능

집요할 정도로 기자들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여 기사량이 상반기에 비해 배 이상의 성과를 가져 왔다

하였다는 것 둘째, 결실기로 치달으면서 언론사업 주체의 열정에 감동하여 여러번 기사를 시도하였던 기자들은 많았지만 데스크에 잘리는 경우가 많았었다. 회원들을 조직화 하여 데스크를 공략하기도 하였지만 보수의 벽을 뛰어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언론사업주체와 기자들은 서로 미안함을 갖기도 하였다. 세째, 몇몇 교수, 회원의 독자투고는 계획한 만큼 이루어 지지 않았고 또한, 기사가 한겨레 신문에 편중된 측면도 없잖아 있었다. 그것은 신문 특성상 다른 일간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데에서 작용한 듯하다. 그리고 지지광고 역시 여러 차례 조직화는 잘되었지만 학생회외의 사회단체나 지지세력을 조직화하는데는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했던 하반기 일간지 사업은 양군모투쟁의 수많은 변수때문에 급박하게 진행되어 왔었다. 또한,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언론사업으로 정부(국방부)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켜 왔었다.

2) 주, 월간지

하반기 들어서면서 주, 월간지 사업은 그 폭이 확대되었다. 종교인 서명운동을 계기로 모든 종교계 신문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서명운동 총화 또한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12월 종교인 서명운동에 많은 진척을 가져왔다. 종교계 서명운동은 종교계 신문의 많은 보도로 20여번의 기사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종교계 신문은 이후 집회나 향의 방문때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로 일간지 사업이 힘들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외 주간지, 월간지는 가능한 모든 주, 월간지 기자에게 기사작성을 유도하였고 1회이상의 기사가 실린 주, 월간지로서는 시사저널, 뉴스피플, 뉴스메이커, 일요신문, 토요일신문, 월요신문, 새누리신문, 시민의신문, 내일신문등 다수가 있다. 특히, 레이디경향 12월호에 실렸던 유재홍 회원 부부의 농촌생활 수기는 부당징집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하였던 눈물겨운 수기로서 많은 여성독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렇게 하반기 주, 월간지 사업은 종교계신문과 시사잡지라는 큰 두 축으로 한 상반기에 이어 항시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혔다.

3) 기타(소식지, 대학신문, 인권하루소식등) 첫째, 소식지(양군모 소식)는 각계각층의 지지세력에 양군모 투쟁의 성과를 알려내고 투쟁의 지지, 지원을 요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도언론이 가지는 내용적, 기동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제기되었던 소식지는 소식지를 만

들어내기 위해 며칠씩 밤샘을 하곤 했던 편집팀의 열의와 피땀의 결과물이기도 하였다. 팩스모뎀을 이용한 300여군데 소식지 배포는 모든 운동단체와 정치권등에 양군모투쟁의 성과를 알려냄으로써 양군모 투쟁을 지지하게 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각계로부터 내용성, 계획성, 조직성, 능동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하반기의 대학 신문은 상반기때와 별반 문제의식이나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결실기에 접어들면서 회원들의 노력을 통한 기사화로 인해 학우들이 농성장을 방문방문하는 횟수가 많아졌고, 전대기련의 연대와 도움으로 전국의 대학신문에 일제히 양군모의 투쟁과 정당성을 아러 낼 수 있었다.

세째, 방송국사업은 C.B.S 시사프로그램에서 대표인터뷰를 두어차례 했으며 '시사자키'란 프로그램에 종교인 서명대표 목사님이신 김광수 목사님과 대표가 방송출연을 하기도 했지만 T.V 방송에 보도되거나 기자들 접촉으로 기사를 제공한 경우는 전무하였다.

네째, 인권하루소식에서 지속적으로 양군모 문제를 부각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하루에 수 백 군데의 주요단체에 배포되는 이 소식지의 경우 재야, 정치권등에 일정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양군모 문제도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적극적인 기사화로 도움을 주었다. 이점에서 <인권운동사랑방>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다섯째, PC통신을 통해서 청와대 큰마당에 양심수의 부당징집 문제를 세차례 실었으며 지속적이지는 못했으나 PC통신 동호인들과의 교류도 시도하였다.

III. 언론사업 총평

1년간의 "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폐와 정상적 사회복귀"에 대한 신문기사 및 방송보도의 분량만도 스크랩북 1권을 채우고 남았다. 이것은 모든 회원들이 보여준 부당징집철폐에 대한 열정과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암울했던 군사통치 시기에 이미 정치권력에 예측되어 버린 제도권 언론이지만 조금은 색깔이 다른 문민시대라는 조건을 맞아 청년양심수에 대

<인권하루소식>은 재야, 정치권등에 영향력이 있어 우리 문제도 인권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기사화로 도움을 준다

한 부당정집을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시켜 나가는 것이 언론사업의 목적이었다. 또한, 양군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칼자루를 정부(국방부)에서 쥐고 있는 만큼 여론을 통한 정치적 압력은 양군모 투쟁에서의 꼭 필요한 무기로 인식되어 왔었다. 때문에 양군모 투쟁을 정치여론전적인 성격의 투쟁이라 규정지었을 때 무엇보다도 언론사업은 정치여론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견인차가 되어야만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1년간의 양군모 언론사업은 한마디로 집요하고 끈질김이었다. 그 수많은 집회와 항의방문을 어떻게 하면 기사화 시켜낼 것인가?, 집회때 마다 그 시기에 맞는 보도협조요청서와 보도자료 배포, 회원들의 인맥을 총동원한 끈질긴 대화노력(기획기사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자들을 반드시 면담하여 설득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양군모 언론사업의 주요방법이었다. 양군모와 관련된 모든 신문기사나 보도들을 살펴보면 양군모 투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단 한군데도 실리지 않고 긍정적이고 문제해결의 의지를 담은 기사와 보도가 전부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곧바로 정부와 국방부에 문제해결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데 민감하게 다가섰던게 사실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양군모가 어떤 문제를 정부에 제기하는가 하는 인식의 기초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의 당위성에 근거한 사회여론을 형성하였고 그것은 곧 수많은 지지광고와 독자투고로 이어졌다. 투쟁의 결실기로 접어들면서 별인 종교인 서명운동은 그전엔 종교인이 아니면 거의 들어보지 못하였던 종교계 신문에 보도협조요청과 그에 따른 보도 및 기사화는 종교인 서명운동을 극대화 시켜냈다. 종교인 서명운동 총화 또한 1. 18 불교인 서명대표자 기자회견, 1. 24 기독교인 서명대표자 기자회견으로 외화시켜 내면서 종교계신문에 열과 정을 쏟아 부어 언론사업의 한 형식을 만들어 냈다.

이렇듯 양군모의 언론사업은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부당정집철폐가 과거청산의 중요한 과제임을 온국민이 인정하게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언론사업의 새로운 정형을 창출 하는데 보여준 회원 모두의 정열은 앞으로의 긴 삶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 다음장은 주요언론에 게재된 기사목록입니다.

시기에 맞는 보도협조요청서와
 보도자료 배포, 끈질긴
 기자설득작업이 양군모
 언론사업의 주요방법이었다.

IV. 기사 목록

1993년

3.6	한겨레신문	모임광고	
3.31	중앙일보	독자투고	홍종원회원
3월	월간 말	4면분량 기사	박희숙 (기고가)
4.2	한겨레신문	기사	
4.2	한겨레신문	독자투고	이영재(이승백회원 아버지)
4.2	한겨레신문	사진기사	변재성 기자
5월	월간 업저버	취재수첩	
5월	월간 중앙	4면분량 기사	김홍균 기자
5.8	동아일보	하단 전면광고	
5.12	한국일보	사진, 기사	김정호, 변형섭 기자
5.25	동아일보	독자투고	이상준 교수(한국외대)
6.3	조선일보	하단 전면광고	
6.6	한겨레신문	사진, 기사	임완호, 정인식 기자
6.8	기독교방송	6시뉴스	조백근 기자
6.8	국민일보	기사	
6.9	동아일보	병무청장 국회답변 기사	
6.24	기독교방송	PD리포트	안혁PD
6.25	기독교방송	PD리포트	안혁PD
7.18	뉴스메이커	1면 분량 기사	최소영 기자
10.9	한국일보등 여러 일간지	병무청장 국감답변 기사	
10.19	한겨레신문	사진	임완호 기자
10.24	한겨레신문	사진	임완호 기자
10.25	월요신문	기획기사	박영란 기자
10.26	무등일보	독자투고	박성근 지지자
10.28	동양일보	사진기사	박성근 기자
11.3	한국일보등 여러 일간지	대정부질의(신계륜의원)	
11.6	시민의 신문	기획기사	황이민 기자

11.11	하나신문	기획기사	장재원 기자
11.16	한겨레신문	사진기사	장철규 기자
11.18	한국일보	기사(사회면 톱기사)	황양준 기자
11.25	주간 내일신문	기획기사	박형영 기자
11.27	토요신문	기획기사	문일석 편집위원
11.27	한겨레신문	칼럼	이상준 교수
11.29	새누리신문	기획기사	백중현 기자
11. ?	한겨레신문	독자투고	노태술 회원
11. ?	한겨레신문	광 고 (5,6면하단 브리지광고)	
12. 1	한겨레신문	기획기사	박중언 기자
12. 4	서울신문등 여러일간지	국공립대총장단회의보도	
12. 9	중앙일보	사진	장운기 기자
12.10	동아일보등 여러일간지	국방상임위 통과기사	
12.15	동아일보	국방부 집회기사	
12.16	내일신문	12.14국방부앞 집회기사	
12.20	한겨레신문	독자투고, 만화투고	오영우, 김동호 회원
12.24	세계일보	대교협 총장단과 양군모 대표 면담 사진	
12월	레이디경향	수기	유재흥 회원부부
12월	시사저널	기획기사	오민수 기자

1994년

1.14	국민일보	서명운동 기사	
1.25	한겨레신문	기독교서명자 기자회견 기사	
1.27	한겨레신문	독자투고	박규환 회원
1.29	서울신문	당정협 의 기사	
1.30	동아일보등 여러일간지	국방부발표 기사	
2.17	월간인권(NCC인권위)	기획기사	

을 연말엔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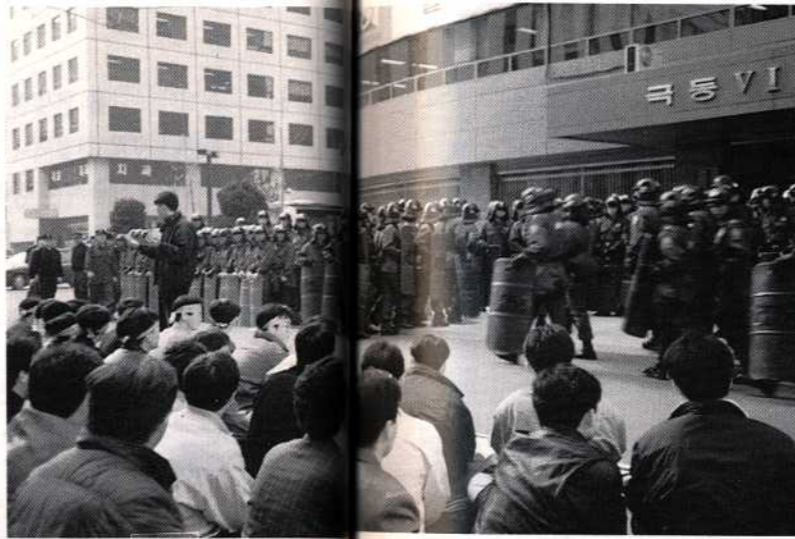
을 연말엔, 어머니
 처음으로 선물하니 마련하고 싶어요
 그렇게 바라시던 장학증서가 아니에요
 빨간 내복위에 자랑스런 첫 월급봉투도 아니에요



양심만으로 어렵지 않던 세상살이
 데모만 할 줄 아는 고슴도치 지식놈
 맨살로 보듬어 가슴만 졸이다
 날벼락 같은 수배와 구속



철혹같이 밀기만한 반평생
내려앉은 당신의 가슴위에
양심으로 지킨 아들의 청춘꽃
놓아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좋은 세상
젊은이들 고생은 끝났다고 믿으시는 당신
귀여운 손자 재롱 꿈꾸시는 반백의 당신께
입. 영. 영. 장
그 긴 세월 기다림
다시 놓아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들려드리겠어요
 이들의 청춘꽃
 양심을 지키는 씨앗이 되어
 당신의 반백이 하얗게 물지라도
 꼭
 올 연말엔, 어머니



□활동보고와 평가.4

사무국 사업 보고서

하반기농성 150일을 중심으로

농성 운영에 필요한 3요소는 농성주체와 목표, 그리고 물적 토대입니다. 양군모 사무국은 3요소 중 하나인 물적 토대의 마련과 안정적인 농성 운영, 그리고 농성 주체들의 활력을 상승시켜 양군모 투쟁 과정이 생동감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양군모 사무국이 조금이나마 주위의 분들에게 감사의 뜻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있었던 그대를 서술하고자 합니다.

1. 농성 진행에 관하여

93년 10월 4일, 93년 상반기 투쟁을 이끌었던 양군모 지도부와 91년 1월부터 8월까지 강제징집 철폐투쟁을 전개했던 당시의 지도부였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때는 병무청의 기만적 발언(10월 8일 양군모 요구안 반대)이 예상되는 시점으로써 91, 93 각 지도부는 그 자리에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양군모 지도부는 10월 18일부터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하기로 하고, 농성 실무와 서울 및 지방 양군모 회원 결집을 준비하는 한편, 각 정당 사회단체들에게 농성 투쟁 돌입 사실을 알리면서, 10월 18일 오전 기독교 회관 7층 기독교 인권위(KNCC) 사무실에서 투쟁 선포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1) 농성장 교섭(KNCC 인권위-기독교 사회운동연합-민주당)

처음의 농성 장소로 KNCC 인권위를 택한 이유는 첫째, 종교단체의 상징성을 매개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종교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대책위' 구성으로부터 외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둘째 소수의 인원, 그리고 사회 정치적 여론을 조성하지 못한 시점에서 민주당 보다는 기독교 회관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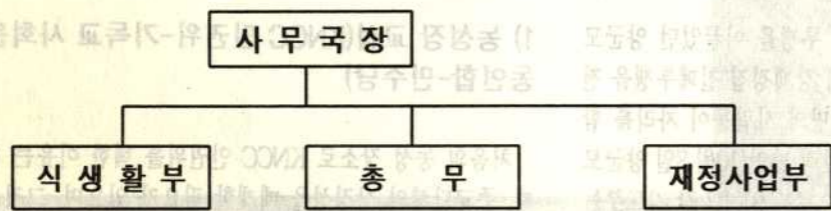
기독교 회관 농성은 KNCC 인권위와 기사관 두 곳에서 연이어서 진행되었다. 원래 계획과 차질을 빚었던 것은 교회 환경단체가 KNCC 인권위 사무실로 입주했

기 때문이다. 사실 KNCC 인권위가 아닌 다른 농성장소로는 민주당 이외에는 고민을 하지 않았던 양군모는 며칠간의 인권위 목사님의 노력 덕분에 3층에 있는 기사련 사무실로 농성장소를 옮기게 된다.

11월 농성을 기사련 사무실에서 전개 했던 양군모는 10월 말의 영장반납 투쟁과 11월 1일 전국 양군모 총회의 성과에 기반하여 농성 확대를 준비하기 시작 했으며, 11월 15일 60여명의 양군모 회원들이 마포 민주당사 2층에 새롭게 농성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당시 민주당은 각계각층의 당사 농성(참고; 전혜투, 한의대생, 약대생등이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었고 양군모 뿐만 아니라 사립 학교 해직 교사들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협의회, 전농 등이 농성을 준비하고 있었음)으로 인해 업무상 차질은 물론 정치력의 한계로 인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11월 15일 이후 23일 여의도로 이전하기 전까지 양군모 농성 대오는 늘어나는 대원들의 안정적 공간 마련과 야당의 지원 촉구를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 사무국 체계



민주당의 이대표를 포함한 수뇌부를 접촉하면서 민주당이 양군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변인 성명으로 지지, 지원 약속을 대중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것이 관철되면서 1월 23일, 양군모 70 농성 대오는 당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트럭등을 이용하여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가게 된다.

2) 식생활부 활동 평가서

재정부와 더불어 식생활부는 양군모 농성 운영의 주축이었다. 양군모 대원들의 매일매일의 식사. 세탁문제를 고민해야 했던 식생활 담당자들은 학생운동시절에 그랬듯이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활동성을 담보 해 내었다. 그 과정은 양군모 전기간의 투쟁과정이 그렇듯이 말이나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계는 있지만 글로써나마 식생활 활동을 서술하고자 한다.

ㄱ. 식생활부 제기 배경과 의의

식생활부는 이전 투쟁과는 달리 10월 18일 기독교 인권위 사무실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하면서 농성장 자체가 농성대오의 생활과 투쟁의 근거지가 되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농성대오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에 기반한 농성투쟁을 위해 제기되었다.

이렇게 제기되어지고 구성된 식생활부는 농성투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리매김 된다.

ㄴ. 경과

양군모 농성투쟁은 그 규모에 있어 크게 2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기는 10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에 이르는 20인 이하의 소규모 농성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2기는 11월 15일부터 3월에 이르는 60인 안팎의 대규모 농성투쟁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1기와 2기는 농성투쟁의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서술하겠다.

① 1기 (10월 18일--11월 14일 기독교 인권위, 기사련 사무실 농성 시기)

이 시기에 안정적인 농성대오 유지를 위해서 처음 식

생활 주체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당시 쌀, 김치를 포함한 식료품의 보급은 농성자 가족, 지지 후원자와 농성 재정으로 해결하는 형태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기에는 식생활 주체가 마련되어 2기 대규모 농성 시기의 정형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다.

② 2기 (11월 15일--3월 : 마포 민주당사, 여의도 민주당사 농성 시기)

이 시기는 1기때의 상근 농성자에 서울과 지방 대상자가 결합한 60인 안팎의 대규모 농성 시기로서 식생활 주체가 아닌 이 농성대오를 책임 질 수 있는 식생활부 구성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리고 이에 맞게 식생활부는 식생활 1인 주체에서 식사팀 3인과 규율, 청소, 빨래담당으로 확대 구성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전문분야로 안착화된다. 그리고 식사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식사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별로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식생활부와 함께 식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때 식사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쌀과 김치를 보급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 농성자들의 식욕은 한끼당 쌀 10kg, 김치 20포기를 3-4일에 먹어치울 만큼 왕성했으며 하루 15만원 이상 들어가는 식비중 쌀과 김치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 우리는 쌀과 김치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여 농성재정에 도움을 주기로 결의하고 고민하던 끝에 강원도에서 사시는 농민분에게서 정부미 20kg짜리 10포대와 부안에서 농사짓는 대상자에게서 쌀 40kg, 전북에 있는 대상자 어머님에게서 쌀 40kg을 지원받는 성과를 얻었고, 김치는 양군모 투쟁에 관심이 지대한 분의 소개로 중앙대 학생식당을 통해 지원받는 성과를 얻었다.(여기서 강원도 농민으로부터 정부미 10포대를 지원받은 사연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분은 혼자 농사를 짓는 분인데 이 정부미는 다름 아닌 냉해 피해 보상금으로 정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농민들이 자기가 지은 쌀을 놔두

고 정부미를 먹는 사람있는가, 아니면 팔리기를 하는가? 더더구나 이분은 혼자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혼자 얼마나 먹는다고. 결국 이 정부미는 창고에 쌓여 있다가 양군모 사무실로 온 것이다. 정말로 정부의 농업정책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이 시기 농성투쟁이 대규모화 되면서 식생활부는 더욱더 안정적인 생활부장을 통한 투쟁의 지지,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자주적인 식량보급은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것이다.

ㄷ. 약 평

- ① 식생활부는 150여일의 농성투쟁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② 자주적인 식량해결은 재정사업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③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생활부 성원들이 잘 드러나지도 않고 굶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은 모범이었다.
④ 식생활부가 식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기타 규율이나 청소, 빨래 등 생활 전반적인 것을 포괄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⑤ 참고로 덧붙인다면 식생활부에 있으면서 음식에 있어서는 결혼해서도 마누라에 뒤지지 않을 것이며 집안 일을 도맡아 하시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3) 사무운영 기능 부분

ㄱ. 기본물품운영

◆전화: 민주당으로부터 1개월(12월)동안 지원받았지만 나머지 기간동안은 5대를 단기전화, 정식전화 등의 방식

으로 함으로써 재정지출이 과다하게 되었다.

◆전송기(팩시밀리) : 어느 농성대원이 활동했던 곳에서 가져온 것으로 활용을 했으나 수선비용이 투입되어야만 했다.

◆컴퓨터 : 대원들 개인의 것으로 충당했으며 몇번의 교체와중에도 많은 물량의 자료와 선전문을 생산해낼 정도로 무난한 운영이 되었다.

◆차량 : 대구에서 올라온 대원의 중고차로 재정사업용으로 운영된 적이 있었지만 전기간에 걸쳐 가장 열악한 부분이었다.

ㄴ. 건강생활 부분

◆운동중 입을 수 있는 타박상에 대비한 구급약을 구비해 놓았으며

◆극심한 독감이 유행했던 93년 12월에는 한의대에 재학 중인 대원을 통해 한약 2종류를 구매하여 복용시키기도 하였으며

◆가장 중점적인 건강관리 방법으로 시행되었던 것은 새벽운동이었으며 덕분에 건강상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 농성대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다시 한번 체력은 투쟁력이라는 명제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이다.

ㄷ. 기타사항

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업주와 협의하여 장당 25원(기존 30원)으로 인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50여만원(150일동안)이 소요 되었다. 차라리 복사기를 대여했다 라면 관리상에는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용면이나 효율적 측면에서 더 나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2. 재정 사업에 관하여

1) 경과보고

① 1기 (10. 18. - 11. 14.) KNCC 농성

[양군모 농성 회원의 회비와 정당, 사회단체 및 재야 인사들의 지지 후원금, 그리고 학교별 모금으로 농성을 운영하던 시기]

--17명의 상근자들이 10만원의 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

--향후의 장기 농성에 대비하는 재정 운영 기조 마련(회비, 수익사업,모금)

--신문광고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양군모의 밤) 준비 기획, 티켓 판매.

--외국어대 양군모 회원들(국수판매), 건국대 양군모(오뎅, 차 판매) 등 각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수익사업을 전개.

--동국대,서울대 양군모에서 총학생회 선거유세시 모금 전개

--도서(한국근현대 사회과학 대계 총 40권)판매기획 ; 건국대에서 1질 판매.

--마포 민주당사로 농성이 확대됨에 따라 농성회원들을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3만원씩의 농성회비 납부할 것을 결정함.

② 2기 -1(11.15 - 11. 27 양군모의 밤 - 12.27)--

마포 여의도 농성

--2기 농성 회비할당액 책정함.(대상자 1인당 30000)

--10.27일 양군모의 밤 행사를 통해 한겨레 신문 광고 기금 1200만원 마련.

--농성인원이 70여명으로 확대되어 농성생활 유지비가 하루 평균 2-30만원이 필요하게 되면서 또 다른 재정 사업에 대한 모색이 절실한 시기였음.

--농성 대오가 상반기부터 많은 액수의 회비를 납부했었으므로 더 이상 회비 중심의 재정운영은 어렵게 되었음.

--12.4일 대학로 집회에서 염가의 차 판매를 통한 모금.

--12.12 민가협 행사장에서 수익사업 전개.

--12. 19일 전체 단합대회를 통한 비농성회원들로부터의 모금.

--12.20일 이후 월말까지 5차례의 (재정 사업의 날) 굴판

매 전개;전체 농성대오 참가.

③ 2기 -2 (12.28. 재정사업단 구성 - 2. 15)

[재정사업단 중심으로 대규모적인 조직 판매 및 영업 활동을 전개하여 재정사업의 일대 혁신을 이루며 막판 양군모 결실전 투쟁의 강력한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시기]

--사무국 자체 고민속에서 재정부의 확대 개편과정에서 12월 28일 재정 사업단을 구성하여 토종골 판매를 시작함.

--재정이 고갈되면 투쟁이 중단된다는 인식하에서 양군모 전체 회원의 가동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으며 기간의 서울 중심의 재정 사업을 벗어나 전국적 범위의 재정 사업으로 나아가게됨.

--재정의 확보가 승리로 가는 또 하나의 지름길임을 각인하는 과정이었다.

--1월 초에 주로 판매되어진 꿀이 구정선물로 판매되기에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1월 중순부터 북한술 판매로 물품을 늘리며 구정을 목표로 판매 사업의

1월말 영업 판매팀을 두어 사무금융 노조(대우증권,제일증권,현대해상화재 등)와 민변 중심으로 영업 판매가 이루어 지기도 함.

④ 2기-3 (2. 16 - 3.)(농성 총결산]

--2. 16 국방부 발표 이후의 시기로써, 농성투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었다.

--이 시기의 재정 사업은 좋지 않았다. 몇 가지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는 정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백서,주소록 발간 그리고 사례(선물)전달, 낙산 수련회, 2.3월 전화 팩스 비용등 지출 항목은 산적해 있었으나 재정 사업 수금은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제안 된것이 비농성회원 모금 사업이다. 2.16조치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 사람중 농성에 참가하지 못했던 회원들로부터 회비와는 또다른 의미의 모금을 하기로 하고 지역별 학교별 모금 액수를 할당하고 사업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양군모 재정은 미수금 회수와 모금을 통하여 별 무리 없이 끝까지 유지되게 되었던 것이다.



가속화.

--재정 사업이 회원들의 활동에 부담으로 다가서는 경우도 있어서 회원중심의 조직판매의 하중을 덜어주기 위해

2) 재정사업단 보고

♣ 경과

- 12.20 기획 제안하다
- 12.28 「재정사업단」 발족(8명)
- 12.29 최초물량 입고되다
- 12.30 신정 귀향판매 시작하다
- 94.1 초순 본격적 판매(조직판매) 돌입하다
- 진주 양군모 모범적 판매사업(1월 총출액:508만원)전개하다
- 1월 중순 주력상품을 '꿀'에서 '술'로 바꿈
- (술의 수금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북한 술은 대중의 통일 열망과 당시의 북한 핵 여론,선물용으로써의 희귀성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고도의 구매의욕 제고조건을 골고루 갖췄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조직판매의 비중을 낮추고 영업판매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다.
 (종교인 서명운동, 국방부발표 임박설 등으로 인해 양군모 농성대로 전체가 지속적으로 판매사업에 결합할 수 없을거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임)

- 1월 중허순 '술 판매'와 동시에 '꿀 수금'에 박차
- 2월 초순 판매사업 중단 / 수금에 집중
- 3월 미수금 정리

♣ 약 평

- 후원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지원 정서와 설날(신정, 구정)용 선물이라는 구매 조건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재정사업단」 발족이 시의적절 적절했다. 설날(2.10)을 겨냥하고 재정사업을 시작했던 기존의 단체보다 1달 정도가 빠름으로 해서 중복된 수요층을 선점할 수 있었기에 판매고를 최대화할 수 있었다.
- 「재정사업단」주체들의 헌신성과 성실성은 양군모 93

년투쟁의 총화된 모습이었으며 94년 상반기 양군모투쟁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그자체로서의 모범적 투쟁이었다.

◆ 다른 부서와의 결합력 부분

다른 부서단위와 연계가 미흡했던 것은 사무국자체의 주체 및 역할상의 문제임과 동시에 양군모 전체 조직운영상의 문제였다. 그것은 조직체계운영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던 측면 하나와 항시 투쟁의 국면마다의 대처를 기동력 있게 해내야만 했던 양군모 투쟁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 양군모식 판매방식이라는 재정사업의 전형을 창출하였다.

- :사상최대의 주점사업 순이익(대공업적수익사업의 모범:지지대중의 자발적 지원)
- :조직력에 기반한 '꿀 - 꿀 - 술' 판매사업의 획기적 성과 (재정사업에서의 집단주의실현)
- :재정 책임주체들의 헌신성

재미있는 이야기

★ 사무국에서 바라본 [양군모 5대 철칙] ★

- 양군모는 어떤 일을, 누가 하든 중요하지 않다. 모든 과업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다
- 양군모는 젓가락을 쓰지 않는다
- 양군모 사전에 미수금이란 없다
- 양군모는 밥한톨을 남기지 않는다
- 양군모는 설거지 당변을 가위바위보로 정하지 않는다

다음장은 결산보고입니다.

구분	내역	금액	비고
1. 결산금	1.1. 결산금	100,000,000	
	1.2. 결산금	100,000,000	
2. 결산금	2.1. 결산금	100,000,000	
	2.2. 결산금	100,000,000	
3. 결산금	3.1. 결산금	100,000,000	
	3.2. 결산금	100,000,000	
4. 결산금	4.1. 결산금	100,000,000	
	4.2. 결산금	100,000,000	
5. 결산금	5.1. 결산금	100,000,000	
	5.2. 결산금	100,000,000	

3. 양군모 재정 총 결산

(기간 : 1993. 1.10 -- 1994. 3.14)

● 총수입금	59,556,210원
① 회비 납부금	28,002,000원
② 후원금, 모금	6,851,780원
③ 재정사업금	23,702,430원
● 총지출금	59,396,510원
① 농성생활비	22,505,810원
-- 식대비	11,612,190원
-- 농성생활 부대비용	8,403,630원
-- 10.18~11.23	1,759,990원
-- 상반기 농성비	730,000원
② 신문 광고비	28,500,000원
③ 활동비	1,895,000원
④ 선전비	3,218,900원
⑤ 기타(운영비)	2,820,700원
● 채무금(부채액)	3,218,900원
● 잔액	2,378,600원

<총수입금+채무금 = 총지출금+잔액>

시기별 결산보고

□□ 93년 상반기(93. 7. 2 총회보고) □□

총수입액	17,335,000원
총지출액	19,316,480원 (16,097,580원)
부채액	3,218,900원
잔액	1,237,420원

▶▶ 수입내역 17,335,000원

①회비납부금	16,520,000원
-- 서울지역	11,920,000원
-- 지방	4,200,000원
-- 중앙상근	400,000원

②후원금	365,000원
③장터	450,000원

▶▶ 지출내역 19,316,480원

①신문광고비	16,100,000원
②선전비(자료집)	555,000원
③농성비	730,000원
④중앙상근활동비	335,000원
⑤사무실사용 및 운영부대비용	1,596,480원

추가결산보고(7.2-10.17)

-- 잔액	1,237,420원
-- 추가운영비	666,420원
-- 연장전 이월금	571,000원

□□ 93년 연장전(93.10.18-12.31) □□

총수입액	28,732,000원
총지출액	26,060,800원
잔액	2,671,900원

▶▶ 수입내역 28,732,700원

①이월금	571,000원
②회비납부금	10,398,000원
-- 서울지역	3,961,000원
-- 지방	5,023,000원
-- 중앙상근	1,414,000원

③모금, 후원금	4,800,580원
-- 서울지역	3,020,580원
-- 지방	130,000원
-- 중앙상근	220,000원
-- 정당, 사회단체 및 인사	1,430,000원
④재정사업 및 순수익금	12,963,120원

- 11.30 양군모의 밤	10,085,550원
- 12.12 민가협 행사 장터	703,600원
- 12.19 단합대회 모금	103,760원
- 굴판매 순수익금	1,970,210원
- 기타 수입	100,000원

▶▶ 지출내역 26,060,800원

①농성생활비	8,423,000원
<10.18-11.23>	1,759,990원
<11.24-12.31>	6,663,010원
-- 식대비용	4,814,850원
-- 농성생활부대비용	1,848,160원

②선전비	3,120,000원
③신문광고비	12,400,000원
④활동비	1,560,000원
⑤집회운영비	557,800원

□□□ 94년 최종전(94.1.1-3.14) □□□

총수입액	15,731,410원
총지출액	13,352,810원
잔액	2,378,600원

▶▶ 수입내역 15,731,410원

①이월금	2,671,900원
②회비납부금	1,084,000원
③후원금	1,686,200원
④재정사업단 순수익금(수금액)	10,289,310원
-- 토종꿀	3,774,000원
-- 북한술	6,515,310원

▶▶ 지출내역 13,352,810원

①1월중농성생활비	6,953,560원
-- 식대비용	4,030,340원

-- 농성생활부대비용	2,923,220원
②2월이후농성생활비(2.1-3.14)	6,399,250원
-- 식대비용	2,767,000원
-- 농성생활부대비용	3,632,250원
◆구체적인 수치(94년 3월 15일 현재)로 보면	
93,94년 총수입금	58,556,210원
총지출금	59,396,510원
총지출금 + 비공식(개인비용 포함)지출금	약 1억5천만원 ?
농성150일간 수입총액	44,463,410원
지출	39,413,610원
이후 지출 예상액	3,000,000원

굴 판매수익금(5일동안)	1,970,210원
12월, 1월 2개월 동안 순수익	25,550,000원
재정사업단 94년1월 총매출액	약 40,000,000원
// 순이익금	10,289,310원
94년 1월 복사비(마스터비용 제외)	565,640원
농성 150일간 복사비	약250여만원
94년 1월 전화요금	약 132만원
농성 150일간 전화요금	약 350여만원
농성 150일간 순수식대비	약 1200여만원
93,94년 신문광고비	28,500,000원

양군모



양군모 자료집 110

활동보고와 평가.5

종교인 서명, 이렇게 이루어졌다.

양군모는 94년 1월경부터 시작된 종교인 서명운동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의 성직자와 여성계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정치적 결단을 주저하던 국방부를 고립시키고 청년학생 양심수에 대한 부당징집 철폐투쟁의 정당성을 국민적으로 다시한번 확인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종교인 서명운동의 과정을 적어보았습니다.

종교인 서명본부

1. 성직자 서명사업이 제기된 이유

93년 12.16일 여야만장일치로 청원이 통과된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었다. '올해안에 과거청산'이라는 구호아래 93년도에는 기필코 양군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바람은 연말연시라는 상황과 정치일정때문에 94년 새해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94년 1월 5일 성직자 서명사업이 공식결정되고 활동주체를 내왔다. 성직자 서명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목적은 첫째, 일괄처리 전원구제를 목표로 국방부를 실질적으로 강제해낸다. 둘째, 국방부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치적, 학계등의 지원세력을 추동한다. 셋째, 서명사업을 통해 농성장과 비농성자의 결합력을 높여 조직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즉, 성직자 서명사업은 국방부가 결단할 수 있는 명분과 여건을 조성해주는데 목적이 있었다. 종교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주목해 정치적,

학계에 이어 서명사업 대상으로 삼았다. 국회청원 통과 이후 국회,대교협 등 기간의 지원세력이 이완되는 시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 수 있는 계기와 동력으로서 성직자 서명을 추진하였다. 서명사업의 과정을 보면 국민여론이 문제다라는 국방부말에 국민여론의 선도자 역할을 하는 교수님 서명을 받았고, 정치적 문제이니 정치적 결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에 국회의원 서명과 청원통과를 이끌어내었고, 국회결정후 동요하는 국방부를 위해 사회의 양심세력인 성직자 서명을 받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서명사업들은 국민여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합리적 대안과 합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이었다. 일방의 주장을 소리높여 외치는 대립과 경쟁이 아니라 주장의 정당함과 사회적 공감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지지세력을 넓혀나가는 정치여론전에 한 방법이었다.

양군모 자료집 111

2. 서명사업과정과 활동방식에 대해

다른 사회적 활동도 그렇겠지만 양군모 활동은 조성된 상황과 주체역량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 만들어진다.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선형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활동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전혀 새로운 활동, 의외의 활동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서명사업 또한, 처음에는 필요한 이유에 공감하고 2000이상 성직자 서명을 목표로 했지만 노선과 활동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종교계는 너무나 생소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자료와 정보수집을 기본활동으로 했고 기층에서는 교회집사자만 보고 다녔다. 성과도 미비했다. 그러나 2주일정도 지나면서 '역시 양군모' 라는 생각이 들었다. 종교에 대해 경험과 정보 인맥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로지 '해야한다'는 각오 하나만으로 시작한 양군모는 드디어 성과를 내어왔고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노선과 활동방침은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실천을 통해서만 생긴다는 것을 확인했다. 발로 뛰면서 정보와 사람과 경험을 축적했다.

양군모 서명사업과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었고 활동방식은 '결정하면 집행한다' '마음먹으면 꼭 해낸다' 라는 주체의 결의를 바탕으로 한 활동 방식이었다. 서명은 상대방이 있기에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과 믿음을 줄 수 있는 태도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자신감과 인내를 필요로 했다. 국민개병주의라는 국민정서, 남자는 꼭 군대에 가야한다는 국민정서의 벽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2000명 서명 목표와 활동기간 2주일이라는 계약을 안고 오로지 발로 뛰었다.

3. 서명사업 경과와 약평

- 94.15 성직자 서명사업 공식결정
- 1.10 서명사업본부등 조직체계와 기초자료모음.기.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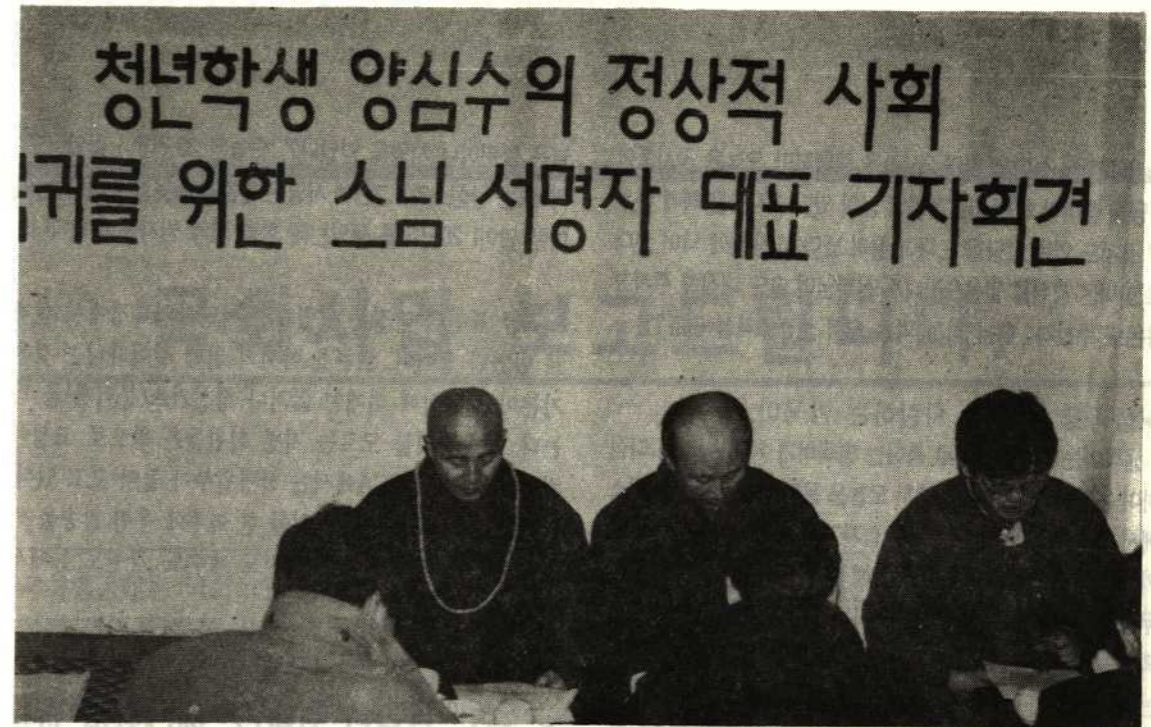
불,도,원,여성계 등 종교별 분화와 각 분임조별로 활동대상과 영역을 분리

- 1.10 교회,성당,절 등으로 양군모회원들 찾아 다니면서 본격 활동
- 1.18 불교계 서명대표자 기자회견
- 1.19 전국 목회자 정의 평화실천협의회,<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김준곤 목사님 성명서 발표
- 1.20 평화신문,국민일보,한겨레,불교신문 등 일간지,잡지 등에 종교계 서명 관련 기사화
- 1.21 기독교1400, 천주교163, 불교330, 천도교6, 원불교126, 여성계81 총2106명 서명 완결
- 1.25 정부종합청사 민원실에서 대통령앞으로 서명원부 접수
- 1.28 병무청 앞 집회에서 성직자 서명사본 전달

전체의 합의와 결정에 기초해서 활동을 했으나 내부에 이견이 존재 했었다. (즉 단식이나 기동성있는 물리전이 필요하더라는) 이러한 내부의 견해차이가 있음에도 조직 전체의 결정과 지도부를 믿고 따르는 회원들의 자세와 태도가 성과를 배가시켰다.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었으나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기에 기대했던 성과를 내어왔고 '한 번한다면 꼭 집행한다'라는 조직기풍을 강조해 했다. 이러한 조직기풍 속에서 자신감과 양군모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다. 각 종교에 대한 무지와 경험,정보,인맥의 부족함을 회원들의 활동력으로 채웠다.

준비되지 못했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조직적 활동으로 넘어서었다. 보통의 서명사업처럼 어떻게 외화되어 실질적인 힘으로 되는지 몰랐는데 기자회견, 직접적인 전화 편지 방문과 신문기사화 등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활동과정에서 생긴 각자의 경험과 정보를 유통시켜 오류를 수정하고 활동방침을 조직적으로 내오지는 못했다. 서명사업 목적중의 하나인 비농성자와 지방조직의 활동을 강화하지도 못했다.



4.. 서명을 받으면서 생긴 일

서명을 받으려면 보통 3-4회 전화를 해야 약속을 할 수 있고 두세 번은 찾아가야 면담할 수 있는 정성이 필요한 일이었다. 목사나 신부님을 만나면 대개는 서명을 해주시지만 논리적 이유를 들거나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서명을 받지 못할 때 허탈감과 비애는 양군모 회원이라면 누구나 갖는 경험이었다. 주위사람들 중에는 교수1350여분 성직자 2천여분의 서명을 받았다 하면 그 정치적 비중이나 양군모 활동의 탁월함을(?) 잘 모른다. 아마도 다른 서명사업과 같이 이해한다거나 양군모 서명사업의 특징을 모르기 때문이고 당사자가 갖는 정서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서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회원들의 모습을 보자

▶마포 갈매기 기철이
하루종일 하늘의 있는 십자가만 보고 돌아다닌 것. 여의도에

서 걸어나가 마포구 일대를 아무런 정보도 없이 걸어다니면서 십자가만 보이면 조건반사처럼 뛰어들어가는 것. 마포지역의 지리는 기철이 손 안에 있소이다. 마포 갈매기 기철이가 한경직 목사 서명을 받기 위해 성남으로 갔다. 아는 것은 전화번호 뿐이어서 동사무소와 복덕방을 찾아가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남한산성 중턱에 집이 있어서 대중교통편이 없구나. 끈기의 기철이는 동요하지 않고 냉랭한 겨울산의 칼바람을 맞으며 등산을 한다. 멀리서 보이는 프라이드 한대, 영화에서만 본 '히치하이킹'을 내가 할 줄이야. "아줌마 자리 있어요? 저희들 좀 태워 주세요"

▶서울지리도 모르는 마산촌농 명수
'명수야 튀리'로 상원의와 환상의 꿈을 이루는 우리의 귀염둥이는 오늘도 신부님을 만나기 위해 노랑진역에서 내렸다. '상원이 행님요 성당이 어딴는교?' '꼭 걸어가면 있겠지 맹수야 가자.' 몇 시간을 걸어도 보이지 않는 성당. 산도 넘고 터널도 지났으나 보이지 않는 성당. 그러나 의리의 사나이 명수는 상원이 선배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른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양군모 사나이의 의리와 우정이다. '행님요 여기가 어딘교? 오다보니 양재네요' 의리의 사나이 명수 어제는 노랑진에

서 양재까지 성당을 찾아 2시간을 헤맸지만 오늘은 공사중인 성당을 찾아야 하는 미로게임이 남아 있다. 2시간을 헤매 아무런 표시도 없는 성당을 드디어 찾아 냈다. 고생끝에 낙이 온다고 찾아온 경위를 말씀드리니까 신부님이 술도 대접해 주시고 용돈도 주셨다. '행님 아까 먹은 술이 씹씹스페셜 맞죠?'

▶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병욱이.

움직이는 자동오라기로 통하는 병욱이가 100%승리를 다짐하며 응암동에 내려섰다. 웬지 오늘은 운이 좋을 것 같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교회 십자가가 느낌이 좋았다. 예장, 기장, 침례교 감리교 등... 기독교에 대해 웬만큼 알고 있다. 고무공같은 탄력으로 목사님이 계시는 사무실로 달려가는 우리의 병욱이. '저어 양군모에서 왔는데요...' 10분을 정확히 얘기하는데 양군모에 이것저것 관심있게 물어봐 30분 가까이 설명을 하고 있는 병욱이. '저 목사님 그래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을 해주십시오.' '아니 목사만 서명하나? 나는 교회 집산데.' 승률100%를 자랑하는 병욱이 100%의 신화가 무너진 병욱이.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가?

▶ 슬픈 눈의 남자 기현이

순진하기만 한 기현이. 어제는 여섯 시간을 돌아다녀 여덟분의 서명을 받았으니 오늘도 잘 될 것 같다. 눈이라도 올 것 같은 날씨에 5조 조장님이신 기현이는 농성 80일째를 맞아 지칠대로 지친 동료들을 생각하며 몽클하고 찌릿한 아픔을 느낀다. '앗! 십자가다.' 슬픈 생각도 십자가만 보면 달아난다. 탁월한 조건반사의 신경을 스스로 감탄하며 교회로 들어서는 기현이. 바로 이즈음 여의도 100화점 6층에서는 기현이의 활동상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던 서명사업본부가 있었다. 바로 이때 화면에 이상이 생기면서 싸이렌 소리. 비명소리. 여의도 백화점 지하1층에서 불이 난 것이다. 자욱한 연기속에서도 대피하지 않고 컴퓨터 작업을 계속하는 용규. 웃, 그리고 식판은 꼭 챙겨야 한다며 분주히 움직이는 원철이. 화재는 실제 상황이었고 55분만에 진화했다. 소방수 아저씨들께 감사의 박수 짹짹!!! 밤 늦게 돌아온 기현이를 들뜬 마음으로 맞이했다. '기현아 오

늘은 몇분이나 서명을 받았니?' '오늘은 20군데나 들었어요.' 와! 하는 탄성소리. '그런데 서명은 한분밖에 못 받았어요' 우째 이런 일이! 20군데를 들었는데 한명 밖에 받지를 못하다니!

조금 표현의 과장은 있었지만 서명사업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토크를 아끼기 위해 걸어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점심때 대개는 굶거나 생선가스(붕어빵)를 먹는다. 서울지리를 모르는 지방 회원들은 참으로 고생이 컸다. 아직도 YWCA에서는 서명원부가 들어 오고 있다. 1월20일 마감이었는데 회의를 한 이후에 우편 발송을 약속하시더니 3월11일 오늘까지도 제주도, 강원도 등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

5. 피는 물보다 진하다. 왜냐하면 피는 피이기 때문에 ...

이상으로 서명사업에 대한 평가글을 마치려고 한다. 평가라기 보다는 몇사람의 활동소감과 나의 생각을 적어서 평가글로는 부족하다. 서명사업뿐 아니라 양군모 활동을 하면서 얻은 성과와 교훈은 '역시 사람은 뜨거운 피를 가졌구나!' 하는 믿음이다. 서명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의외로 흔쾌히 서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운동을 이해주는 사람만 관계했던 우리에게 종교계, 학계, 여성계, 사회원로분들의 서명사업은 믿음과 용기를 주었다. 진실과 정의는 통하는 구나 하는 믿음. 솔직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고 정성을 다하면 도와주는 구나 하는 믿음.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도 여럿이 힘과 지혜를 모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에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 양군모

■ 활동보고와 평가.6

국회사업 보고드립니다.

국회별동대는 국회의원 서명작업, 국회청원소위, 본회의의 청원통과, 본회의 및 국방상임위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한 공세, 개별의원 추동에 의한 국방부 압력, 민주당을 통한 정치공세, 민자당을 통한 실질적 결과를 내오는 일 등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국회사업은 양군모 투쟁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했으며 여러모로 살펴볼 점이 많다. 구체적 활동을 중심으로 간단하고 부족하지만 점검과 평가를 하고자 한다.

국회별동대

들어가며

양군모 투쟁에서 국회별동대의 역할은 양군모의 문제를 정치권에 제기하여 지지를 얻는 것, 이것으로 이후 양군모 투쟁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까지 대정부 공세와 투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활동내용과 평가

1. 국회의원 서명작업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 서명을 통하여 국방부와 병무청의 반대논리를 분쇄하고 양군모 투쟁의 정당성을 대외



민자당 앞 시위를 벌이는 양군모 회원들

적으로 확보하며 활동의 진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축으로 제기되었던 국회청원통과를 확보하는 의미의 사업이었다.

(1) 결과

국회별동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명의 의원실만 해도 4-5차례이상 방문) 164명의 의원서명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성과

- ① 이후 양군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교두보로 작용
- ② 국방부, 병무청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양군모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압력이었고 대교협등의 사람들에게는 계속 양군모에 관심을 가지게 했으며 이후 활동에 확실한 명분이 되었다. 그리고 민자당과 민주당에게는 계속 우리의 문제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했고 민자, 민주당의 이후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 ③ 이후 국회사업(개별의원을 통한 압력행사, 대정부 질의 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2. 대정부 질의사업

민주당 정대철의원을 통한 국방상임위 대병무청 질의를 통하여 양군모의 요구를 정치권에 처음 제기했으며 이후 국정감사와 93년 10.8 이후 새롭게 투쟁을 시작할 때도 대정부질의를 통해 문제해결의 촉구공세를 펼쳤고 질의와 답변등으로 향후 싸움의 교두보가 확보되었다. (전임 황인성 총리의 신계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1) 결과

- ① 93년 상반기민주당 정대철의원을 통한 문제제기
- ② 국정감사중 민주당의원들의 문제제기
- ③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신계륜의원)를 통해서 "청원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총리의 답변확보

(2) 성과

- ① 11.3 신계륜 의원의 질의에 대한 총리의 "청원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강구"라는 답변은 향후 청원소위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켰다.
- ② 질의-답변을 통해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정부 공세를 취함

**'청원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강구'라는
총리의 답변은
향후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3)한계

국회일정과 맞물리는 사업이므로 미리 국회일정을 정리하여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시에는 사전 대처가 부족했다. 2월 임시 국회시 김장곤 의원의 대정부 질의시 서면질의 밖에 준비되지 않았고, 국방상임위는 병무청 질의가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면서 서면질의로 대신했다. 그리고 이미 국방부의 발표가 있는 후라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3. 국회청원소위 및 상임위, 본회의 통과를 위한 사업

청원취지의 완전수용으로 만장일치와 이견없는 통과와 그것을 통한 대정부 권고는 양군모 투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는 중요한 사업이었으며 청원소위위원, 국방상임위원, 기타 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부여했다.

(1)결과

청원소위의 이견없는 여야합의 통과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결과가 나왔다.

(2)성과 및 한계

- ① 청원의 통과로 합법적으로 근거를 지닌 양군모 투쟁의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했다.
- ② 가장 강력한 대정부(국방부, 병무청)압력이 이루어졌다.
- ③ 국방부의 안일한 태도를 변화시킨 사업이었다.

는 투쟁이었다.

(1) 결과

민주당 상임위원들의 장관 및 기타 관리들과의 전화등의 접촉과 개별의원들(임복진, 나병선의원 등)의 직접 접촉등을 이끌어 냈다.



④ 다만, 청원의 본회의 통과 후 국방위원들이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사고를 갖게 되었고 지속적인 이들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강제해 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4. 개별의원 추동에 의한 국방부 및 대정부 압박 공세

청와대, 국방부, 민자당 등 여권에 양군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게 했고 양군모의 지지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였으며 결실전까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

(2) 성과 및 한계

- ① 개별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냈으며 국방부등에게 압력수단으로 작용하였다.
- ② 그러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5. 민주당 활동 추동작업

민주당의 모든 통로를 통해 대정부 공세를 펴고 양군모에 대한 지지 지원을 획득하고 양군모 투쟁의 승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주당 개별 국방위원들의 양군모 투쟁에 대한 지원을 강제하는 사업이었다.

(1) 결과

- ① 여의도 민주당사 농성장을 확보하였다.
- ② 양군모 지원역량으로서 민주당을 확보하였다.
- ③ 최고회의, 당무회의 등 당 공식회의의 안건으로 다루어졌고 여러 차례 대변인 논평이 발표되었다.

(2) 성과와 한계

- ① 양군모의 강력한 지지, 지원세력으로 민주당을 자리매김 시켰다.
- ② 최고회의 결과등이 개별의원들의 참여등의 작업에 기반이 되었다.
- ③ 대정부 촉구 및 공세등을 얻어냈다(대변인 논평과 민주당 인권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해 공세, 강수립 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④ 그러나 양당의 한계로 말미암아 민주당의 역할이 문제제기 차원과 분위기 조성수준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었다.
- ⑤ 또한 복잡한 당내 사정으로 최고회의 결의사항이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최고회의에서 국방부 항의 촉구방문단을 구성했으나 국방위원들이 전화로 처리해버리는 일도 있었다.)

6. 민자당 활동

민자당 사업은 양군모 문제 관련 부서인 제2정책조정실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목적은 크게 두가지 였는데 하나는 당정협의를 통해 국방부의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방부의 결단을 강제하는 것이었다.

(1) 그 결과,

- ① 3-4차례의 당정협의를 이루어짐
- ② 계속적으로 국방부에 문제해결을 촉구케 함

(2) 성과

① 당정협의를 거쳐 "18개월방위안"이라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를 철회하게 함

② 국방부가 최종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

(3) 한계

민자당에 결실국면의 모든 내용을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선별처리안'에 발이 묶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총 평

국회별동대 사업은 양군모 투쟁을 시종일관 주도하는 투쟁이었다.

이와 같이 투쟁을 주도한 것은 투쟁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국회사업은 이전의 어떠한 투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사업이었기에 경험의 부재, 정치권의 생리 파악미흡등으로 활동에 적지 않은 난관과 우여곡절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회사업이 미흡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 오게 했던 것은 주체들의 합리적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한다.

양군모 전체 투쟁평가 속에서도 많은 부분 언급되었겠지만 합리적 대안의 제시와 유연한 대응 또한 국회사업의 성과를 내오는 커다란 힘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안으로 국회사업이 필요할 경우 양군모가 펼친 사업이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의의이고 좋은 참고가 될 것임을 믿는다.

양군모

활동보고와 평가.7

교수님과 함께 한 『양군모』

교수님 사업 별동대는

전국 각 대학 교수님 1350여분의 탄원서명을 받았으며 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문제해결 촉구를 일구어낸 바 있다. 우리 양군모 회원에게는 서먹서먹하기만 했던 교수님들이었지만 사제의 정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도움을 주신 스승님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사업 별동대

사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구체적인 일로 1만인 탄원 운동을 내놓았다.

국회의원, 학자, 종교인으로부터 이웃집 아저씨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이하는 큰 흐름을 만들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우리를 지켜 보았고, 격랑의 와중에 최루가스로 함께 눈물 흘려야 했던 교수님으로부터 우리 삶이 윤택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는 또한 文民을 표방하는 정부나 사회적 분위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몫을 할 수 있을 터이다.

교수서명 사업 시작하다.

10월 8일 양군모 총회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결의했다. 결국 열쇠는 '힘'에 있고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사람을 모아 그 힘으로 文民을 압도하는 수구를 제압하고 승리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병역의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고, 군사통치의 수난자들 또한 정상적으로 일하고 살아야 한다. 이는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소망이자 요구이다.

다시 캠퍼스에서

10월 말 전국에서 2천명의 교수 서명을 받기로 하고 지구별로 학교별로 일감을 나누었다. 그러나 일은 진척되지 않았다.

우리 시대가 교수와 학생을 '가깝고도 먼 사이'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 듯 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교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에 별로 익숙지 못하다. 두려움 같은 것이 있기도 하다. 교수님에 대한 막연한 불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꽃병(?)을 들고 교문을 나설 때, '이러면 안된다'고 학생은 도서관과 강의실에 있어야 한다며 가로막던 교수님의 모습이 기억에 가득한데..... 과연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러나 교수님이 우리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과연 누구를 설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직 '배가 덜 고파서' 이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평가받고 일그러진 과거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다시 캠퍼스에 섰다. 최루가스와 담배연기, 라면국물과 소주의 추억(?)이 깃든 곳. 20대청춘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던 자리. 연구실 문을 두드린다. 무슨 말을 할까,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가라앉히며 들어선다.

"고생했어. 이제 더 이상 양심수도 있어서는 안되고, 젊은이들을 '감옥에서 군대'로 격리하는 것도 없어져야 돼. 열심히 해보자. 희망 잃지 말고." 교수님 서명이 들어 있는 탄원서를 손에 쥐고 문을 나선다. "야, 된다!" 짧은 외침이 캠퍼스에 울린다.

11월 15일 민주당사(마포) 농성을 전후해서 서명사업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하루하루 점검하고 모범을 찾아 배우고, 총장, 학생처장 등 보직교수들의 참여도 늘어났다. 보직교수들의 참여는 여러모로 좋은 일이었다. '총장님까지도'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고, 교수님들에게는 부담감(?)을 주었을까?

마침내 약 1500명의 교수 탄원서가 모아졌다. 2천명이

라고 말은 했났어도 막상 얼마나 될지 생각하면 갑갑하기만 했는데 1500분의 교수님이 참여하셨다. 우리 말고 이렇게 많은 교수서명 받은 데가 또 있을까? 떨리는 가슴, 벅찬 기쁨으로 우리는 승리를 감지하고 있었다.

외국어대 이상준교수님(사범대 학장)을 모시고 기자회견도 가졌다(11월 30일). 교수님으로부터 우리 삶이 윤택함을 확인받는 순간이었다. 광고도 냈다. 우리는 이기고 있었다.

1500분의 교수님 서명을 받기까지, 누구 한 사람 고생(한편으론 기쁨 가득한 시간이었지!)하지 않은 이 없지만 특히 이 지방 저 지방,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회원들 만나 다독겨주며 직접 연구실을 쫓아 다니기도 했던 조직국 사람들 고생 많았지.

**꽃병(?)을 들고 교문을 나설 때
가로막던 교수님의 모습이 가득한데...
과연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다.

'양군모'는 총장님들을 귀찮도록 만났다. 각종 자료 전달, 상황 메모, 전화, 편지.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있을 때는 아예 지방까지 가서 만났고, 참여하는 학교 총장님을 일일이 만나기도 했다.

총장님들께서도 국회의원이나 병무청장에게 전화도 해주시고,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시기도 하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주셨다.

그리고 12월27일에는 '양군모' 대표단과 송년모임을 갖고 격려해 주시기도 했다.

열매는 아름답고

교수님 서명 탄원의 약발은 여러 군데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청원'심사 과정에서도 두툼한 1500분 교수탄원서 문치를 보고는 모두 놀랐다.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도 시국관련수형 학생들의 징·소집 면제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2월 17일에는 대교협 회장 김희집 총장님(고려대), 부회장 박홍 총장님(서강대), 부회장 장혁표 총장님(부산대)을 비롯하여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중앙대, 국민대 총장님이 국방부장관을 만나 우리 문제의 긍정적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로써 우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끝났다.

이른바 '국민정서'와 '법'을 내세우며 개혁의 물줄기를 막아 서던 사람들의 논리는 '현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교수님들의 문제제기는 성공적이었으며 그것은 여론이 되어 '양군모' 문제를 풀어가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였다. 교수님들이 탄원하시고 총장님들이 나서신 것은 그 자체로 '힘'이 되고 남았다. 애써 맺은 열매는 보기에 아름답다.

그러나 文民은 아직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마치 文民이 무슨 대단한 자량인 양 내세우면서도, 정작 文民의 대명사인 교수님과 총장님의 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 교수님과 총장님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일일이 챙길 수 없음을 알고 있는 당국은,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단지 문제제기의 수준에서 참고할 뿐이지 그 이상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부 수구적인 행정관료들은 교수님들의 의견을 '철없는 간섭'쯤으로 매도하고 치부하기도 하였다. 여전히 수구의 입김이 文民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불행한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는 文民을 말하면서도 文民스럽지 못한 정권 아래서 가장 文民스러운 방법으로 文民의 대명사인 교수님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그 힘으로 文民의 文民답지 못한 벽

**가장 文民스러운 방법으로
文民의 대명사인
교수님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그 힘으로 文民의 文民답지 못한
벽을 뚫는다.**

을 뚫고 말았다.

이제 이 '힘'이 우리 삶의 든든한 믿음이 되고, 앞으로 진짜 文民이 통하는 새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겠다.

양군모

활동보고와 평가.8

삼각지, 1993년 겨울 새벽

징역살이를 해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침의 냉수마찰입니다. 차디찬 겨울 날씨에도 온 몸에 찬물을 끼었을 때의 모습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무슨 종교의식 같은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양군모도 그렇게 겨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온 겨울을 꼬박 농성장에서 보내면서도 감기치레 한번 하지 않은 것은 동지들의 체온도 있었지만, 흑한의 겨울 새벽 국방부의 아침을 깨우곤 했던, 우리들의 함성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최후목표, 우리 활동의 마지막 집중처. 국방부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 보고자합니다.

국방부 별동대

1. 왜 국방부 사업이 제안되었나

11월 24일 여의도 민주당사로 옮겨 오면서, '모두가 활동의 주체로 서면서, 모두가 책임지는' 지역 전투의 구체화 작업이 제안되었고, 그에 기인한 별동대가 건설되었습니다. 농성이 없어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생활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활동력을 총집중시켜 피가 끓는 20대의 청년 수백명이 곳곳의 분야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한 판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때, 별동대의 건설은 꼭 필요했으며 국방부 별동대도 이 시기에 함께 건설되었습니다.

2. 활동 내용

건설당시의 활동내용은, 국방부 아침전투의 진행 및



국방부 앞 출근투쟁 모습

실무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당시 전무했던 국방부 내부의 논의구조 및 결정단위 파악, 내부의견 등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양군모의 입장전달 창구의 역할과 양군모의 대 국방부 정책, 사업제

안 등의 역할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국방부 내부 입장에 대한 확인작업과 국방부 내부 논리에 대한 반박작업(면담, 성명서, 항의방문 등)을 위한 일들을 주요하게 했습니다.

3. 국방부 아침전투

아침전투 하면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목포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여인두가 있고, 선전에 뛰어났던 남총련 동생들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악역을 도맡았던 규율부장 병욱이의 활약도 굉장했습니다. 아침전투는 우리들의 각오,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흑한의 겨울 새벽, 대방역으로 향하는 젊은 우리들의 눈빛은 형형했고, 그 아침의 부지런함으로 오늘 하루도 헛되지 않겠다는 결의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국방부와 매일매일의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등병 계급장도 못달아본 주제에 못 장성들을 내려보며, 양군모 별을 모두 합치면, 국방부 별보다도 많을 것이라고 큰소리 치며, 우리는 국방부를 향해 함성을 지르곤 했습니다. 또한 아침전투는 우리들의 싸움을 사회에 알리는 조용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신문기자들이 다녀갔고, 우리들의 모습이 주요 일간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헌병들의 충성소리와 매일아침 마주쳤던 아주머니의 모습도 잊지 못할 모습들입니다.

4. 국방부 입장변화 과정

① 불가; 10월 - 11월까지

국방부의 의견은 우리의 요구인 시행령 개정은 불가였습니다. "과거 운동했던 사람들이 군대가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아니냐?" "소수를 위한 법 개정은 안된다" "국민개병주의는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인데 수행생활과 병역의 의무를 연관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등의 논리로 우리사안에 대해 반대의 입

장을 분명히 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신들 530명만을 제외한 국민대다수가 반대한 사안임으로 법령개정을 할 수 없다"는 국방부 입장에 대해 우리는 교수님과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명작업으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② 이해는 가나 "법개정의 어려움"등의 이유로 해결곤란

이 시기는 수천명의 교수님의 서명과 국회의원들의 서명등으로 인해 우리들의 활동력이 고양되는 시기이며 밖에서는 아침전투가, 직접 만나서는 "그동안의 병역법 시행령이 정치적으로 개악되어 왔으며, 우리들은 그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사실과 12. 12쿠데타의 예를 들어가며 진정한 애국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을 통해 과

못 장성들을 내려보며
양군모 별을 모두 합치면
국방부 별보다도 많을 것이라고
큰소리 치기도

거 우리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 인식과 더 큰 사회기여를 위한 우리들의 정상적 사회복귀에 대한 내용전달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국방부 관리들의 태도는 일면 정서적으로는 이해한다고는 하나 실제 해결의 방식에서는 반대를 고수하던 시기였습니다.

③ "국회본회의 통과이후에 보지"

이 시기는 11. 22 우리들의 청원이 국방 상임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후 총리의 국회답변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며, 집요하게 우리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책임있는 행정처리를 하도록 요구한 시기입니다. 우리 사안이 정치일정에 오르게 되고 국회의 본회의 결정을 눈앞에 두

게 되자, 실무자들의 직접적인 검토의견은 여전히 불가
이나 국회결정에 대해 여지를 남기는 답변을 거듭했습니
다.

④ 국회본회의 통과이후 '방위안'결정 정책회의
까지.

이 시기 주요한 국방부의 관심은 국회의 권고안에 대
한 구체적인 처리지침 표현과, 청와대의 처리방식에 대
한 의견 여부였습니다. 국회본회의 통과 이전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후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던 발
언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주면 처리하기가 쉬울
것을"하며 법령을 개정하는데 대한 부담을 계속 느껴가
던 시기였으며, 시행령 개정 또는 입대후 조기전역등의
방안이 검토단계에서 법제처, 군내부 여론등의 내외적
반발에 부딪혀 하나 둘씩 폐기되어온 과정입니다. 그 결
과 1월 18일 정책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집면
제는 곤란, 다만 국회권고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는 필요
함"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전원 18개월 방위처분안으로
후퇴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⑤ 다시 시행령 개정으로

방위안이 국회의 동의를 구하려 갔다가 국회의 강한
반발로 인해 발표가 연기되고 양군모가 국방부의 기만적
인 처리방안에 대해 병무청과 국방부에 강도높은 항의방
문투쟁을 감행하자 재검토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1월 한
달동안 진행된 종교인 서명사업 및 각 대학 총학생회장



국방부 민원실에서 집단적으로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단의 항의촉구서한 발송도 우리 사안에 대한 어정쩡한
해결에 대해 쉼기를 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의 흐름에서 보여지듯이 국방부 관리들의 행정을
이끌어낸 것은 국방부 관리들의 심경의 변화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힘의 집중 즉, 국회청원의 본회의 통과, 종교인
의 서명, 국회의원의 제지, 그리고 시의적절한 항의방문
및 촉구서한 발송등의 물리적, 정치적 압박을 그 전제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전술로 나타났던 우리 양군모 내부의 정치전
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도 국방부 관리들의 행정처리를
이끌어 낸 동력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군인의 생리 즉,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반발심리와 폐

폐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묘한 군인들의 생리를 우리
다양하고 집요한 활동으로
제압하였다

쇄적인 자기 방어논리를 우리들은 국공립 총장님 여덟
분의 장관면담으로, 그리고 민원실 업무를 마비시켰던
항의, 전국 총학생회장들의 수백통의 촉구서한의 쇄도로,
그리고 아름다웠던 아침전투와 대규모 집회의 결합으로
몰아쳤습니다. 국방부가 양군모에게 힘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국회청원에 대한 처리와 법개정의 형평성 문제
에 대해 모양새를 갖는 고심을 할 때, 대교협 팀과 국회팀
을 통한 구체적 설득과 압박은 성숙된 활동방식으로 평
가될 수 있습니다. **양군모**

■활동보고와 평가.9

병무청 사업보고

병무청 별동대는 양군모의 공식 대표단으로서, 병무청과 부딪쳐나가는 전과정을 책임지고 진두
지휘하는 지위와 역할을 갖는다.

우리 싸움의 주된 공격 대상이 병무청에서 국방부로 옮겨간 이후 병무청과의 싸움은 주로 면담
이라는 형식을 통해서였다. 병무청 별동대는 우리의 요구와 입장을 병무청에 전달하고 협상하는
역할, 우리가 여러가지 통로로 만들어낸 정치적 힘이 병무청의 구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파악, 회원들 각자의 안정된 싸움의 조건을 마련해 주는 영장 연기등의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면담 이외의 병무청앞 집회등의 행동전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주도하는
임무를 전체로부터 부여받았다.

병무청별동대

활동주체

기본인원 김성중(별동대장), 이승규(영장 연기 대책위
원장) 이외에 김정훈대표를 비롯하여 다수의 회원이 별
동대에 번갈아 참가하여 활동을 하였다. 인원의 잦은 변
동으로 다소 활동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정된 별동대
원이 매번의 활동마다 자리를 지켜주어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었다. 다른 측면으
로는 상층 협상자리에 회원들 스스로가 한번씩 참석하면
서 직접 저들의 분위기와 정서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
기도 하였다. 또한 정세토론 과정에서 별동대에 속한 회원
과 그렇지 않은 회원들간의 미묘한 정세판단 근거의 차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활동내용

(1) 면담

7. 징모국장 면담 --- 항시적인 면담이 가능하고, 나
름 대로의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방부의 정책 결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병무청의 실제 당국자는 징모국장
이었다. 수시로 자유롭게 징모국장과의 면담이 가능했던
건 이전 대표단의 끈질긴 병무청 사업덕분이었다. 사실
중앙관청의 2급 공무원을 어떻게 마음내키는대로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병무청 별동대의 사업 초기에는 국
장의 코빼기조차 보지 못했다. 몇번을 허탕치고 난 후 과
감하게 쳐들어가지 않았더라면 하급 실무자들과 병무상
담이나 하게될 뻔 했다.

국장과의 면담은 병무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지리한 입씨름의 장이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말꼬리잡기, 떠보기, 얼르고 뺨치기 등의 다양한 대화전술을 구사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징모국장은 병무청장과의 면담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ㄴ. 병무청장 면담 --- 병무청장과의 면담은 두 차례 이루어졌다. 첫번째는 한 달 보름동안이나 물고 늘어졌던 병무청 별동대의 끈질긴 요구의 결실이었고, 두번째는 진관스님, 송병구 목사님과 집회도중에 즉시로 잡힌 면담이었다.

첫번째 면담은 시종 청장에게 이끌려가는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번째 면담에서는 진관스님과 송병구 목사님의 탁월한 대화술이 분위기를 주도했고, 선별처리 반대라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후에 확인된 바, 병무청장이 '조기 전역안'을 국방부에 건의한 사례 등이 작으나마 일정한 성과로 남는다.

(2) 영 장 연 기

영장반납 투쟁 이후 영장연기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한결 수월해졌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녔다. 이전의 영장연기가 합법적인 연기 사유를 유연하게 적용시키는 차원이었음에 비해 양군모 회원 즉, 시국

관련 수용자라는 증거이 곧 영장연기사유가 되는 질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일괄적 연기는 우리 문제가 정부내에서 공식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예였으며 회원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그리고 회원들이 언제 영장이 나올지 모르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영장에 얽매임 없이 안정된 농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이기도 했다.

영장연기는 병무청 실무자와 별동대간의 직접 통로에 의해 이루어졌고, 93년 상반기 명단에 빠져있는 회원의 경우에는 각 지방청에 판결문을 제출함으로써 해결이 되었다. 2월 16일 국방부 발표 이후 지금까지는 판결문 제출의 과정 없이 전원 일괄 연기되고 있다.

(3) 집 회

93년 10월 8일 국정감사 이후 주된 공격 방향은 병무청에서 국방부로 옮겨갔다. 7.8월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국방부 실무자들의 거센 반발이 결국 시행령 개정을 무산케 했다는 분석으로부터 이러한 결론

이 도출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집회, 시위 등 소위 행동전은 당연히 국방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정책 결정단계에서 병무청장의 역할이 중요해져 병무청에 대한 물리적 압박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1월 24일 병무청 항의 방문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던져주었다. 그 첫째는 투쟁속에서만 주체는 단련되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정 이후 흐트러진 대오가 병무청사 안에서 죽기살



기로 싸우는 과정에서 새롭게 정비되는 성과를 얻었던 것이다. 둘째는 정치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행동전은 항상 모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1월 24일 항의 방문 이후 5명 검거 운운하는 경찰의 태도가 이를 쉽게 증명한다.

1월 28일 집회는 일주일 가량 사전에 준비한만큼 모양 있고, 실속있는 집회가 되었다. 250명가량 집결한 것도 한 성과지만 즉석에서 청장과 면담이 이루어진 것은 예기치않은 큰 성과였다. 사전에 얼마나 고민하고 준비하느냐가 집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였다.

마 감 하 며

해야될 이야기는 어지간히 다한 듯 싶으니 이제 우스

갯소리 몇마디만 덧붙이고 글을 마감할까 한다. 농성대가 별동대 체계로 재편되면서 제일 영양이 없고 한직인 곳으로 모두들 병무청 별동대를 지목했다.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이제 싸워야 할 곳은 병무청이 아니고 국방부이니까. 병무청 직원들의 말을 빌리면 이전엔 우리가 헛다리 짚은 꼴이다. 이렇게 병무청의 위상이 낮아지니까 별동대도 스스로의 활동 폭을 면담과 정보과악 등에 한정시키고 조금은 느슨하게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병무청 별동대에서 수석 부대표가 나올 줄을.....?

우리 싸움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병무청 별동대가 해야할 일은 그럭저럭 잘 해낸 듯싶다.

그러나 이만큼 한 것도 기획실의 끈질긴 강요와 협박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터, 기획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양근모

일지로 살펴본 병무청 별동대 활동

12월 8일 : 병무청 첫 방문.

이후 국장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국회 청원이 통과될 경우 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며, 병무청은 특별조치령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다.

1월 6일 : 한상태 사무관 법제처 방문.

법제처에서 특별조치령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듣고 옴.

1월11일 : 징모국장 면담.

사건임을 전제하면서 18개월 방위안에 대해서 거론했다.

1월21일 : 청장 면담.

청장은 실행자와 집유자의 차이, 고령자와 연소자의 차이 등을 거론하며 선별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1월24일 : 어머니 8분 포함 50여명 항의방문.

청사안에서 청장 면담과 한국일보 기사 해명을 요구하며 3시간 동안 농성.

1월28일 : 대규모 집회. 250여명의 회원이 결집한 가운데 선별처리 반대, 전원일괄 구제의 내용으로 집회를 열었다.

(이후 병무청은 시행령 개정 불가, 제 2 국민역 불가의 입장을 되풀이)

2월16일 : 국방부 발표.

그 이후 25세, 26세 문제, 실행자 문제로 계속하여 면담 협상중.

문민요새 청와대 사업보고

청와대 별동대

1. 경과

- ⇒ 93. 4 김영준 교문수석실 비서관을 접촉하면서 시작
- ⇒ 상반기 일정기간 동안 수차례 접촉했으나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반복
- ⇒ 이후 접촉이 단절되었다가 하반기(93. 10 이후) 재접촉 시도
- ⇒ 10월 하순 영장연기 투쟁시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문제 해결에 간접적 영향 끼침
- ⇒ 12월 김정남 교육문화수석 접촉. 양군모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발언
- ⇒ 12. 31 김정남 교육문화수석 접촉. 문민정부와 군의 관계를 설명하며 어려움을 제차 표명

2. 평가

처음 양군모는 청와대의 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물론 이후의 경과 속에서는 청와대의 사후 동의로 결정남) 청와대와의 접촉선은 전교조,제적생 복직문제 등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교육문화 수석실을 주로 하고 국방정책과 관련된 외교안보수석실을 보조로 했으나 외교안보수석실과의 접촉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문수석실의 경우 상시적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었으며, 또한 양군모 문제의 성격상 일

정한 사회문제화 즉, 힘있는 조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협상의 대상이 되기 힘들었다. 때문에 93년 하반기가 되어야 청와대와 논의들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에 대한 상대적 장악력의 부족을 안고있는 문민정부, 특히 청와대는 군 인사비리 척결등의 시기적 악재로 인해 그 장악력이 더욱 취약해져 있던 상황이라 양군모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를 꺼려했다.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관심을 갖고 상황추이를 관찰하는 것 뿐이었던 것이다. 별동대 활동의 경우 창조적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청와대의 높은 벽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소극적이었던 오류도 있었지만 이는 청와대의 개입유보 태도로 인한 한계속의 오류였다고 판단된다.

3. 기타

93년 12월 ()일 청와대 별동대 3인은 새벽 5시 농성장을 출발하여 연신내 김정남 교문수석의 집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더니 사모님이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30여분후 김 수석은 목욕탕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드디어 양군모는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을 만난 것이다. 물론 별 성과는 없었지만 패기있는 청와대 별동대 활동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한편 김수석의 부지런함(6시 등산, 7시 출근)도 대단한 것이었다. **양군모**

도요꽃을 사기 위하여 도요꽃을

양군모 글마당



!!!

1200여명

들꽃으로 피어나 다시 들꽃으로

문민요새 청와대 — 동지들에게 드리는 제언



오기 형 (서울대 86, 기획실장)

무릇 젊은이는 드높은 기개와 넓은 포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지난 날의 수배, 구속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갈등과 번뇌를 거치면서 스스로 소신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새롭게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남다른 고민과 어려움을 스스로 선택했고, 역시 남다른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우리가 학생운동 시절 겪은 것이나 그 연장으로서 지난해 1년간의 양군모활동을 전개해 온 것은 우리 스스로의 소신을 굳히고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더욱더 커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생운동과 양군모 투쟁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후의 참된 삶을 위해, 양군모 활동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떠한 믿음과 동료를 얻었는가에 대해 새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학생운동을 했던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자 !!!

학생운동 과정에서 구속되어 징역생활을 하고 나온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학생운동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고통스러운 기억과 오늘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지난 시기 삶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를 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난 시기 자기 삶에 대한 소극적 시각이나 패배적 태도는 이후 모든 일에 있어서 확신과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자신이나 사회에 모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은 3월 19일 150여일의 농성을 해산하는 총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교수서명이나 지원단을 구성할 때 의외로 쉽게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수많은 선, 후배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느꼈습니다. 학생운동했던 내 삶이 많은 이들에게 인정 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우리의 학생운동 삶이 불의에 저항하여 젊음을 바쳤고 삶 자체가 운동의 역사였다는 점을 인정받았고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학생활동은 결코 고통스러운 기억만을 안겨다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로 체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땀땀했던 삶에 대해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하자!!

집을 지을 때 많은 종류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어떤 나무는 서까래로 쓰이고 어떤 나무는 기둥으로 쓰입니다. 다 같은 나무지만 그 쓰임새는 제 각각입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나무들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독특한 쓰임새로 이용되기 때문에, 멋진 하나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는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양군모 활동을 하면서 원철이는 농성 식생활을 담당했고, 정훈이는 대표로서 활동하고, 지태는 고려대 책임을 지고, 준진이는 재정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서로가 다른 지위와 역할을 맡으면서 시차를 달리하면서도 양군모로서 하나되어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국방부 앞 시위를 하기 위해 6시 반에 기상하여 영하 15도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오를 형성했던 80명의 동지들이 선두에 서서 양군모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학생운동을 했던 시절의 결의 못지 않게 굳은 각오와 자세로 서명운동도 했고 아침시위도 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부모님과 선후배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만날수는 없지만
서로 잊지 않고
각스에 품고 있는 것은
다 같을 것입니다

대오를 중심으로 서로에 대해 신뢰하고 각자의 임무에 충실했던 우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맙시다!

꺾이지 말고 꺾끗하게 살아가자!!!

사시사철이 순환하고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있듯이 세상은 변화해 갑니다. 동구권의

들꽃으로 피어나 다시 들꽃으로

변화와 정치 지형의 변화 또한 세상사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요즘 풍미하는 변화에 대해 하등 힘들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변화에 조응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세우고 변화속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군모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변화에 조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고, 창조적이고 열린 태도가 필요함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속에서도 변해서는 안되는 것,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소신, 소외된 민중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자세, 열심히 하는 이들에 대한 믿음.

자신이 굳게 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론이나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나서며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만의 주장과 고민, 나만의 삶이 아니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민과 활동을 함께 풀어가는 연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원칙이 꺾이느냐의 여부는 오직 사회적 관계에서 좌우됩니다.

우리는 결심하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낼 힘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지 말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서로에 대한 지지와 연대, 질타와 충고를 아끼지 맙시다!!!

양군모활동을 정리 하면서 우리는 각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러 전국 각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대구에서 진주에서 청주에서 강원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양군모 동지들을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특기와 주거지가 달라 매일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은 다 같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열심히 활동했던 그 친구는 그 후배는 그 선배는 역시 지금도 자기 지역에서 보다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동지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울곧게 뜻을 펴는 동지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중을 배반하고 민족의 이익과 어긋나게 자신만의 삶과 개인의 생존경쟁에 몰두하는 이들에게는 질타와 충고를 아끼지 맙시다.

아직 젊은 우리들이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함께 만날 때 역시 뜨거운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으면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양군모

詩

올 연말엔 어머니

황순주 (동아대 90, 일명 순돌이)

올 연말엔, 어머니
 처음으로 선물하나 마련하고 싶어요
 그렇게 바라시던 장학증서가 아니에요
 빨간 내복위에 자랑스런 첫 월급봉투도 아니에요

양심만으로 어렵었다던 세상살이
 데모만 할 줄 아는 고슴도치 자식놈
 맨살로 보듬어 가슴만 졸이다
 날벼락 같은 수배와 구속
 칠홍같이 멀기만한 반평생 내려앉은
 당신의 가슴위에
 양심으로 지킨 아들의 청춘꽃
 놓아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좋은 세상
 젊은이들 고생은 끝났다고 믿으시는 당신
 귀여운 손자 재롱 꿈꾸시는 반백의 당신께
 입.영.영.장
 그 긴세월 기다림
 다시 놓아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들려드리겠어요
 아들의 청춘꽃
 양심을 지키는 씨앗이 되어
 당신의 반백이 하얗게 될 지라도
 꼭
 올 연말엔, 어머니



수필

양군모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들

10월 8일 병무청의 공식반대를 접하고 '양군모'는 위기에 직면했다. 양군모 활동을 정리하느냐, 아니면 큰 희생을 감수하고 다시 싸우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이상봉 (동국대 85)

1.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나는 대학 4년간 학생운동을 삶의 중심에 놓았다. 전공공부, 가족, 연애 등은 부차적인 문제였고 고민도 많지 않았다. 우여곡절과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후회없이 졸업을 했다. 학생운동을 정리하고 사회운동을 계속하기 위한 매개로서 '점거농성투쟁'을 했고 징역도 갔다왔다. 학생운동 과정이 나에게 준 것은 사회를 볼 수 있는 눈과 진리와 양심의 편에 서서 살 수 있는 용기였다. '불의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신념은 나의 생활을 건강하게 해줬다.

징역에서 배운 것은 '원래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것이다. 교도소내 방침이 어떠하든 옳고 정당한 주장은 끈질긴 활동을 통해서 수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만한 대가(단식 등)를 치르지 않으면 관심도 끌 수 없고 관찰시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나를 돌아보게 한 징역에서 나와 공장생활을 했다. 불안정한 신분과 사회초년생이 갖는 긴장감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타면서 사회생활이 나에게 준 것은 수많은 교훈과 현실의 벽이었다. 퇴근후에 자취방에서 소주 한잔을 마시고 베갯잇을 적시기도 했다. 사회현실에 대해 무지함을 깨닫는 과정은 슬픔과 혼란도 있었지만 기쁨이기도 했다.

학생시절 배웠던 이론이나 논리는 관점과 입장을 세우는 것 외에는 큰 도움이 못되었다. 변화발전하는 구체적인 현실은 나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요구한다. 생활비(돈), 기술, 새로운 인간관계가 필요했다.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회에서 공짜는 없다는 것과 내가 성실히 일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논리, 좋은 말이라도 남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몇년간의 사회생활은 합법적 신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혼란과 갈등속에서 92년말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군대에 가기로 결심했다. 대선이 끝난 93년도에 91년도 '강제징집철폐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던 친구를 만나고 '군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풀지 말고 집단적으로 풀어보자고 결의를 했다. 93년 1월 10일경 건국대에서 '양군모' 준비모임을 가졌고 이는 내 인생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2. '불패의 신화 양군모'와 나의 교훈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활동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나의 생활과 소감만을 말해 보고자 한다.

"결심이 서야 입장과 방법이 생긴다"

10월 8일 병무청의 공식반대를 접하고 '양군모'는 위기에 직면했다. 양군모 활동을 정리하느냐, 아니면 큰 희생을 감수하고 다시 싸우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15명 정도가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데 몇사람을 빼고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것 같다. '양군모는 이제 다시 싸워 승리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그냥 끝내기도 아쉬운 점이 있으니 정리'를 위한 투쟁이라도 하자'라는 것이 대체적인 정서였다. 나 또한 승리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고 결의 높은 투쟁을 할 결심이 서지 않아 망설였다.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렇게 패배적으로 끝내서는 안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동료들이 이후 투쟁을 같이 책임지자고 해도 나는 망설였다. 혼란과 동요가 양군모 내부에 만연했고 총회때 계속 투쟁하기로 결정했지만 결의는 서지 않았다. 이런 동요는 10월 20일경 4명의 영장반납투쟁으로 일소되었다.



집단적인 영장반납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한겨레신문등에 보도되었듯이 공식적으로 영장반납을 하기도 처음이었다. 선례나 근거도 없이 오직 양군모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발표' 이후 발부되기 시작한 영장을 연기해야만 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듯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과 현실에서 적절한 대응방법이 나온다. 문제는 주체의 결의였다. 평생을 군기피자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해야만 했다. 또한 영장반납투쟁이 실패하면 양군모는 다시 일어설 수 없기에 꼭 이겨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 집단적으로 해야만 했다. 이러한 결심이 없으려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영장반납투쟁'은 승리했고 이후 양군모투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영장반납투쟁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국회와 청와대, 사회원로 등의 지지세력을 모으기 위한 활동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활동, 주체의 활동력이라는 배움이었다. 우리가 결심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어떤 세력에게도 지원 받을 수 없다.

당시 영장연기가 다시 된 것은 지원세력의 도움도 있었지만(어쩌면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이러한 도움마저도 우리가 결심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았으면 쟁취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교훈은 이후 양군모활동의 기초가 되어 주체의 활동(농성, 서명사업, 국방부 출근투쟁)을 기본으로 지원세력의 도움을 구하는 활동방식을 채택케 했다.

주저하고 망설이면 반드시 실패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체가 끝까지 인내하고 활동하면

성과를 낸다는 경험은 극한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조와 용기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정보는 힘이다”

당연한 이말을 양군모 활동에서 만큼 실감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국토개발에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린다거나, UR에서 지적재산권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된다는 일들에서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느낀다. 허나 문제 해결에 결정적 요소일 수 있는 정보력이 힘이더라는 것은 실감해보지 못했다.

양군모에는 '국회대책반'이 있다. 매일 국회로 출근하면서 의원회관을 들고 상임위에 참석하기도 한다. 국회의원이거나 비서관, 출입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생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고 저녁에 점검회의를 한다. '언론반', '대교협반', '국방부 병무청반' 등등 각 별동대로 활동을 보고, 점검하면 단순한 얘기거리가 2,3일 경과하면 활동방향과 지침을 만드는 핵심요소가 되기도 한다. 수많은 지식, 정보, 사건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양군모 입장에서 분석, 종합, 가공하면 진정한 의미의 정보가 된다.

여야의 핵심쟁점이 무엇이고 물밑교감이 어느 정도인지, 각 당내 역학관계와 핵심인사가 누구인지, 국회의원과 청와대 사회원로 등 인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기본이다. '쌀 개방문제'가 정국을 휩쓸 때 양군모 사안은 밀려나기에 언론반 활동도 국회활동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이럴 때는 다음을 준비하는 활동을 해야한다. 18개월 방위안이 나왔을 때 국방부에서 공식화하기 전에 민첩한 사전 봉쇄활동은 사전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는 유통되어 물질화될 때 힘을 발휘한다. 종교인 서명을 받을 때 각 종교에 대한 무지는 우리활동을 정보수집과 무조건 찾아다닐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후 활동력에서 생긴 경험과 정보, 인맥은 핵심인사의 파악과 면담을 수월케 했으나 중앙단위에 그치고 각 조별로 유통되지 못해 활동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갖지 못해 성실성만으로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농성대원 개개인의 활동에서 생긴 정보는 양군모 활동 방향을 시기에 적절하고 상황에 맞게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정보력은 조직전체의 활동력에 조응한다. 정보는 집중시키고 책임은 분산시킨 내부의 활동은 혼란과 동요 없이 조직전체의 활동방향을 만들었다. 양군모가 내부에 이견은 있으나 큰 문제없이 지도부를 믿고 따르는 조직기풍을 세우는데도, 민주적 조직운영을 하는데도 정보유통은 그 역할을 다했다.

활동방향과 지침(기획)은 종합된 상황판단력에서 생기고 옳은 상황판단은 정보에서 생기고 정보는 곧 회원 개개의 활동력에서 생긴다. 정보유통은 조직내 의사결정, 집행통로이며 민주적 조직운영의 내용이다. 조직이 단일한 사상과 행동통일을 보장하는데는 정보유통과 토론이 필요하다.

양군모는
내 인생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조직내부의 행동통일은 승패의 결정적 요소이다”

양군모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지역, 정파, 학번이 다양하고 생활과 활동의 경험차이가 존재한다. 83학번에서 91학번까지 나이차이가 존재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다 모였고, 정치적 견해차이 또한 존재한다. 이런 다양함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는 양군모 활동에 대한 견해와 결의, 결합시점의 차이등으로 인해 활동의 감각과 정서상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었다. 11월 중순경 마포 민주당사로 농성장을 옮기고 농성대오도 확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우려는 우려로 그쳤고 뜨거운 동지적 결합력을 과시했다. 아마도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거나 절대화시키지 않은 유연함이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다. 매 시기 활동방침에 대해 견해차이는 항상 있어 왔다. 견해차이와 감각의 차이는 분임조회의와 조장회의 그리고 총회를 통해서 해소되었다. 형식적인 틀은 이러하지만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1년 가까이 활동해온 4~5명과 기독교회관때 결합한 상근농성자에 대한 신뢰는 초기의 조직활동을 튼튼하게 했다. 초기의 이런 신뢰는 이후 활동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교수 서명사업과 '상층사업'(당시에는 이렇게 이해했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양군모의 밤'과 12.4 집회의 성공은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을 확고히 심어줬다. 이때부터 '양군모식 사업방식'이라는 말과 '양군모가 결심하면 반드시 집행한다'라는 말이 나왔다. 이는 회원 개개인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켰기에 가능했다. 주점때 티켓판매와 수금계획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12.4 집회시 인원동원 또한 계획했던 그대로(700예상, 7~800참가) 달성되었다. 과거 운동경험에 비추어 보면 계획대로 집행된 적이 없던 우리 활동에서, 이는 큰 사건이었다. 회의에서 동지들에게 한 말은 꼭 지켜야 한다는 믿음과 강제력은 이후 활동의 동력이 되었다.



'유연전술'에 대한 12월 회의나 성직자 서명에 대한 회의에서 '양군모활동'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활동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농성에서 생긴 인간적 유대와 조직에 대한 충실성등으로 인해 견해차이에 대한 논쟁으로 역량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천활동을 통해 집중해 나갔다. 활동과정에서 집중해 나가는 방식은 '일단 결정하면 꼭 집행하는' 조직기풍에 의해 실패를 모르고 진행되었다. 생각컨데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은 꼭 하나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활동대오가 하나의 결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가능하다. 강고한 투쟁대오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케 한다.

“열정의 양군모”

양군모에서는 힘이 느껴진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혼란스럽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매사에 정열적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농성생활의 즐거움과 여유를 갖는다.

모든 조직에는 목표와 당면과제, 활동지침등이 있다. 그리고 해당 조직만이 갖는 특유의 조직기풍이 생기게 마련이다. 기업세계에서도 삼성과 현대의 기업스타일이 있고 민자,민주당의 분위기 또한 다르다. 해당 조직의 사기나 분위기 또는 문화는 그 조직의 활동력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떠한 조직문화를 갖느냐에 따라 사기충천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풀이 죽고 맥이 빠진 채 실패만 거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조직내부의 단결력과 규율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다. 양군모 또한 양군모만의 조직문화가 있다. 해당자 전원이 학생운동 출신이고, 모두가 징역생활을 한 전과자라는 것 그리고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간 청년들이라는 일체감은 양군모식 문화를 형성한 뿌리가 되었다. 지역,정파,학번에 대한 구분보다 청년양심수라는 일체감이 앞선다. 양군모 회원들은 거의 모두가 고집스럽다. 부당하거나 애매한 일에 적당한 타협을 모른다. 징역생활을 통해서 외로움을 알았고, 동지에 대한 그리움과 집단,조직의 소중함을 느꼈다. 교도소내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해 징벌을 받고 단식을 하고 구타를 당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왜냐하면 한번 타협하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탕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양군모식 바둑은 싸움바둑이다. 치열한 점전의 연속이다. 그리고 무조건 일수불퇴이다. 양군모 당구 또한 엄청 짜다. 오락이기는 하지만 대충대충 장난으로 치지 않는다.

양군모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지킬 수 있는 말과 약속만 한다. 기본대로 희망대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신의 활동력에 기초해서 결의를 밝힌다. "결정하면 꼭 집행한다"라는 조직기풍은 우리의 자랑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책임과 결의가 뒤따른다.

이러한 조직기풍이 생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술구사가 필요한 때문인 것 같다. 이를 위해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주체역량에 대한 정확한 타산이 필요하다. 1백명이 필요한 활동에 50정도밖에 역량이 안되면 전술을 수정하거나 역량을 배가시켜야만 했다.

사업중심이라는 개인적 평가도 있었지만 조직활동은 일을 위한 조직이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의 조직'성격을 갖는다. 거짓없이 꼭 집행되는 사업 속에서 동지적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조직문화와 기풍에서 '양군모는 강하고' '나는 양군모 회원이다'라는 자부심이 생겨난다.

양군모 회원들은 거의 모두가 고집스럽다. 부당한 일에 적당한 타협을 모른다

3. 다시 양군모에서 사회속으로

이제 1년만에 걸친 양군모의 사업도 끝을 맺을 때가 되었다.모두가 다시 1년전에 떠나

왔던 곳으로, 혹은 진주로, 혹은 강릉으로 다시 돌아간다. 누구는 다시 공장으로 누구는 농촌으로 또 사회단체나 지역으로 제 각기 자기가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제 우리는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모두 떠나올 때 한가지씩 약속을 하였다. 반드시 우리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끊어 버리고 보다 자유롭고, 강인하고 성숙한 아들이 되어, 애인이 되어, 동지가 되어 돌아오겠노라고.

이제 돌아가는 우리 양군모 회원들 가슴에는 모두 한아름씩 소중한 꾸러미들이 들려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군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패배감을 모르는 자신감과 민족과 민중에 대한 사랑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의 연대, 지지의 힘과 소중함을 알았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했던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삶의 올바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나의 삶은 나 스스로가 개척하고 일궈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나는 양군모 사업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이 그러했겠지만 사회의 변화와 나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그러나 이제 나는 그때 느꼈던 혼란이 얼마나 추상적이고,패배주의적인 관점에서 비롯되었던가를 깨닫게 되었다.이러한 혼란은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통해서 보다 명확해 질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질 수 있다.이는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그 어느때 보다도 치열한 삶을 살았던 양군모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느낀 교훈이다.

그리하여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양군모의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물론 이 말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미래 완료형일 뿐이다.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를 다짐하듯이 우리 양군모 회원 전체를 믿는다.

Do -See- Plan!!! 양군모

● 어느 청년양심수 아내의 수기

나의 작은 소망 하나

임 덕규/「양군모」회원 유재흠(서울대 86)의 처

행복, 그 고통스런 단어

아침밥을 올려놓고 마당에 나서니 채 건히지 않은 아침안개가 청호 저수지 위로 날리고 있다. 열은 빛깔의 안개가 견히고 조금씩 햇살이 물위를 비추어 온다. 아침햇살에 반짝이는 물들의 수선거림이 아름답다. 나는 한참을 마당끝에서 서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가을 풍경을 바라본다. 이토록 낯선 곳에서 낯선 삶을 살기까지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새삼 신기하게 여겨진다. 7개월 된 아이를 뱃속에 품고 새벽논에 간 남편을 기다리며 밥이 익어가는 내음을 따뜻하게 쿵쿵대는 한 여자의 모습이 나일 수 있다니...

집한칸 땅 한뼉이 지금 내게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 나에게겐 젊음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으며 곧 태어날 예쁜 아이와 건강한 아이가 있다. 지나온 날들이 너무도 각박했기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행복한 순간들이 분에 넘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문득 아득한 두려움이 몰려와 이 평화로운 한 순간마저도 세차게 흔들어 버리고 만다. 갑자기 뱃속의 아이도 불안한지 발길질을 해댄다. 배에 손을 얹고 부엌에서 나와 마루끝에 앉는다. 이제 남편이 바지 가랑이에 아침이슬을 가득 적시고 올 때가 되었다. 며칠 전처럼 논두렁에 편 흰 구절초 묶음이나 아름답어 떨어진 알밤 몇개라도 주워가지고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꽃을 내밀기도 전에 오늘아침 나는 울어버릴 것 같다. 남편은 머지않아 군대에 가야 하고 아이와 나는 단둘이 남아 3년의 세월을 견디어야 한다. 남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보다도 더 큰 고통을 나는 또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남편을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과 정의와 양심과 실천의 고뇌속에서 한치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대학생활을 생각한

이 글은 서울대 86학번 유재흠 회원의 부인이 자신의 처지와 희망에 대하여 쓴 수기로서 작년 여성잡지인 레이디경향에 실린 바 있습니다.

다. 우리의 청춘이 그토록 암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시대와 맞닥뜨려지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단란하고 평온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애기 아버지가 되어 군대에 가야하는 고통쯤은 없었을 것이다. 남편이 학업에 전념하고 군대갈 나이에 군대가고 제대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의 몸으로 살 수 있을만치 순리적 시대였다면 말이다. 그러나 공부해야 할 시간에 거리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수배와 감옥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의 나이는 멈추지 않고 흘렀고 감당해야 할 책임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민주와 통일을 위해 청춘을 바쳤지만 이제 스스로 문민정부라 이름하는 새정부에서도 우리의 고통은 외면당한채 아물지 않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암울한 시기 아물지 않은 상처

요즘 남편은 말수가 썩 줄었다. 항상 즐거움을 잃지 않는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의 활동으로 해결될 듯 하던 군대문제가 다시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병무청에서는 긍정적이었는데 국방부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지연되다가 최근에야 해결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나이 스물일곱에 군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남편을 암담하게 만들었다. 나 또한 암담하기는 마찬가지다. 뱃속에는 7개월 된 우리 아기가 자라고 있고 혼자서는 도저히 아이를 데리고 힘겨운 농사일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3년이지만 우리에게 있어 3년은 너무나도 긴 세월이다. 그동안 장만해놓은 농기계와 어렵사리 얻은 땅을 고스란히 3년동안 묵혀야 하고 남편이 제대한 뒤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 이런 사실보다 더 숨막히는 것은 남편과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세월동안 빈자리를 혼자서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과 나에게 군대는 제2의 감옥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신혼의 살뜰한 정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생이별을 해야 한다.

대학시절, 아무런 설레임도 없이 마주치다가 조금씩 눈빛이 그리워지고 만나면 눈을 마주보기가 웬지 얼굴 붉어질 무렵에 그는 감옥으로 갔다. 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마침내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움에 애달아했던 시절, 그 고통의 계절이 또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가두에서 만난 그이

그때도 가을이었다. 연일 청문회가 열리고 비굴한 독재자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88년의 가을에 우리는 만났다. 매일매일 신촌거리로 매우며 전두환과 이순자의 구속을 외치던 날들이었다. 그날도 나는 운동화 끈을 짚끈 묶고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무장한 전경들이 먼저 기다리던 시절, 최루탄을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면 때였다.

신촌의 가로수들이 노란잎을 보도에 깔아놓았고 그 나뭇잎을 치위며 우리는 보도블록을 깨서 짱들을 만들었다. 최루탄에 맞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짱들이었고 짱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 여학생들의 몫이었다. 아직 전두환 씨가 백담사로 출가하기 전이어서 전경들은 필사적으로 데모를 막았고 경찰들은 학생들을 모조리 잡아가기 위해

나의 귀족 수배 리니

혈안이 되어 있었다. 시위대 속으로 최루탄이 터지고 사복체포조가 쫓아왔다. 경찰을 피해 골목 골목으로 흩어지는데 최루탄이 옆에서 터졌다.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고 눈을 뜰 수가 없을 뿐더러 다리는 힘이 풀려 발을 떼놓기도 힘들었다. 뒤에서 전경들의 발자욱이 큰소리로 가까워졌다. 아 잡히는구나.

그때였다.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뿌리쳤다. “놔 새끼야”. 전경이 잡은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들리는 목소리라니 “야, 빨리 뛰어”. 눈을 떠보니 낮익은 남학생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잡히지 않고 무사히 피할 수 있었다.

그 뒤로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는 내게 “놔 새끼야”하며 웃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삶을 함께 할 첫 발자국이었음을 그도 나도 그때는 몰랐다. 세상사람들의 어떠한 사랑이 그리 쉽게 이루어진 것이 있겠는가라는 연애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랑은 한마디로 우여곡절이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깊어질 무렵에도 그와 나는 서로 해야 할 일들이 무척이나 많았다. 웬 약속들이 그리 많은지 일주일에 한번 만나기조차 어려웠다. 보통 저녁 아홉시나 넘어서야 만날 수 있었고 또 그것도 한사람이 약속이 길어져 한두시간 늦게 오기 일쑤니 결국 두시간 기다려 한시간 만나고 헤어지는 날들이 많았다.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소중히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꿈꾸는 삶의 방향이 같았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둘만을 마주보며 가슴 설레이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보며,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길에 늘 함께 하는 사랑을 가꾸어 가자고 우리는 마음먹었던 것이다.

수배, 구속,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인문대 학생회장이 되었고 얼마뒤에 총학생회 평양축전준비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공안통치가 한창이던 당시 그에게는 곧바로 수배가 떨어졌다. 고난의 세월이 시작된 것이다. 학생회 일로 바쁜 와중에도 얼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수배를 받은 이후에는 거의 만나기가 힘들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지내는지 잠은 어디서 자는지. 잘 있다는 소식은 가끔 듣지만 그의 걱정에 잠을 설칠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런 생활도 오래 가지는 않았다. 임수경양의 방북 사실이 알려진 후 평양축전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일제 검거령이 내려졌고 주위의 동료들이 하나 둘 잡혀갔다.

무척이나 더웠던 7월 18일 오후, 그 역시 관악경찰서 형사들에게 연행되어 곧바로 구속, 수감되었다. 근 두달만에 그의 얼굴을 보았다. 철망을 사이에 두고 말소리도 크게 질러야 들리는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면회였지만 너무나 반가웠다. 비록 영어의 몸이었지만,

그리고 제대로 씻지 못한 채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그를 마주대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기쁘기까지 했다.

20일간의 조사기간을 마치고 그는 영등포 구치소로 송치되었다. 일주일에 두번씩 면회가는 일이 내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두번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힘든줄 몰랐다. 바삭 말랐던 그가 감옥에서 오히려 살이 올랐다. 나는 “전빵같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했다. 그럴때마다 그는 “잠못자고 밥끓는 수배생활을 하다가 잠잘자고 밥 제때 먹으며 호강하니 살오르는게 당연하다”고 능청을 떨었다.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때면 쾌활한 그의 모습이 떠올라 뿌듯하기도 했지만 웃음뒤에 드리워져 있는 외로움과 그리움의 그림자가 내내 눈에 밟혔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초조하고 불안했다. 꼭 집행유예로 나와야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도 모두들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는 기대와 한편에는 심한 불안감을 안고 나는 분주하게 감옥과 집과 학교를 오갔다. 1심선고 공판날이 왔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릴없이 분주하게 집안을 정리하는등 마는등 하고는 재판장으로 향했다. 의자에 앉아 개정을 기다리는 마음이 몹시도 긴장되었다. 재판정으로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의연했다. 이어서 판사가 들어오고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다”. 그리고는 끝이었다. 분명히 “단 앞으로 0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판사는 확 들어가 버렸고 그는 돌아서서 흰 이를 드러내어 씩 웃고는 교도관들과 함께 밖으로 사라져 버렸다. 분명히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으셨던 그이 어머니께서는 한참동안 어리둥절해 하시다가 몸부림을 치며 울음을 터뜨리셨다. 실행 1년 6개월이라니.

새로운 족쇄, 군문제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수십년씩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하는 생각을 하면서 2심재판을 기다렸다. 감옥은 매우 추운 모양이었다. 두툼한 솜바지 저고리를 입었는데도 면회갈때마다 그의 얼굴은 파리했다. 그즈음 그는 징역살이보다 군대문제를 오히려 고민하고 있었다. 병역법이 개정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라는 것이다.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본 결과 남편이 징역에 들어가기 전인 3월말에 병역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년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군대가 면제되던 것이 일반범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시국사범들은 실행 2년이상을 받아야만 소집면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휴학상태에 있었고 비록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군대에 끌려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비참했던 89년이 가고 90년이 되었다. 2심까지의 기간도 꽤나 길었다. 2심에서 나올 것에 대비하여 복학신청을 해놓았다. 봄기운이 감돌던 90년 3월 7일 남편은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고 학교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복학으로 자동연기될 줄 알았던 입영영장이 4월 10일자로 기다렸다는 듯이 나왔던 것이다. 감옥에서 나온지 한달이 갓 지나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는 만 24세까지 졸업할 수 있다는 서류증명을 통해서 가까스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었다.

이후 군문제는 그에게 긴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며 우리를 괴롭혔다. 솔직히 지금까지 한순간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

로운 적이 없었다. 힘들고 바빴던 가운데서 싹튼 우리의 사랑을 열매로 영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였다. 결혼을 결심한 우리에게 있어서 군문제는 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것은 곧바로 나의 문제이기도 했다. 우리에게 군대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했던 몇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90년 6월 남편의 후배 하나가 군에서 의문사를 당한 것과 그 이듬해인 91년 군대에 들어갔던 남편의 동료가 학창시절의 학내 조직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군대영창에 갇힌 사건, 그리고 잇따라 발생한 군입대 운동권 학생들의 학내조직 연루사건들이 그것이었다. 학원 녹화사업은 5공시절만의 얘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부안땅으로

그는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남은 학기를 마치고 91년도에 했수로는 5년이지만 학기로는 8학기만에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일단 군입대는 2년간 더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를 찾은 우리는 진작에 장래를 모색하게 되었다. 어릴적부터 고향에서 농사일을 거들어온 그는 일생의 직업으로 농민의 삶을 선택하였고 대학시절 농활을 열심히 했던 나 역시 여성농민이 되기로 마음 먹었다. 우리는 그것이 학생운동을 시작하면서 마음먹었던 민중들과 함께 하는 삶과도 일치한다고 믿었다.

친정 부모님들께서 그이 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시는 속에서 92년 5월 9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였고, 이곳 전라북도 부안땅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꿈같은 신혼의 나날이 지나갔다. 군문제도 이때만은 우리의 꿈을 방해하지 못했다. 농사일에 자신이 있는 남편은 동네에서도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가을에는 정미소에 들어가 하루에 수백가마의 나락을 메어 나르는 가대기 일도 거뜬히 해냈다. 농사일이라고는 농활때밖에 해보지 않았던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서서히 이골이 나기 시작하여 고추따고 깨밭매는 일에 자신이 붙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온 나라가 선거열풍에 들떠 있었다. 우리가 선거에 거는 기대는 좀 남다른 것이었다. 정권이 바뀌면 우리 남편과 같은 양심수들의 군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데 대한 기대였다.

과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깜짝 놀랄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독재권력에 빌붙어서 치부한 자들이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 하나하나 사라져 갔다. 학생운동 관련 제적생들에 대한 복적조치도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는 한껏 희망에 부풀었다. 감옥의 그늘속에 하루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군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에서였다. 올해 4월 서울에서 양군모가 결성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편은 바쁜 농사일을 뒤로 하고 동지들과 함께 해야 한다며 서울로 올라가 한달동안 상근으로 활동했다. 양군모는 두차례에 걸쳐 신문하단 전면광고를 실으면서 왕성하게 활동했고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듯 했다. 그러던 것이 7월이후 문제해결이 더디지기 시작하더니 최근 국방부로부터 어렵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군대에 가야 한다는 얘기인가?

누가 이들의 청춘을 돌려줄 것인가

남편의 이야기는 남편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5백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짧게는 몇개월에서 길게는 3년에 가까운 징역을 살고 군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대는 “남들이 다하는” 국민의 의무를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다. 적어도 이들에게 군대는 감옥이다. 사회생활에서의 격리, 그들이 징역에 있을 때 온갖 고초를 다 겪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철저한 격리이다. 또한 이들에게 군대는 감옥과 함께 그들의 청춘을 모두 빼앗아 버리는 어두운 시절의 푸른 옷이다. 그들이 입대하여 제대를 하는 3년의 시간은 양심수라는 꼬리표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사회에 그나마 내린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거센 바람이다. 누가 이들에게 이들의 청춘을 보상해 줄 것인가. 골목에서 낯선 사람들과 마주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한밤중 바람에 창문이 흔들릴 때마다 깜짝 놀라 깨어나는 불안한 수배생활. 방안에 떠놓은 물이 짹짹 얼어붙는 한겨울을 체온하나라 견디며 외로움과 그리움에 몸부림쳐야 했던 감옥살이. 그 모진 고초를 겪고 이제 자유의 햇살을 보기 시작한 이들의 꽃다운 20대는 그 뜻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채 이제 군대에서 송두리째 저물어 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이 감옥에 간 것도 그들의 책임이니 그들의 청춘도 그들의 몫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그들은 암울했던 시절, 지금은 다들 자유롭게 얘기하는 민주와 통일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지금의 문명정부는 적어도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이 오늘을 위해 바쳤던 과거를 보상해 줄 수는 없을까? 그것이 정부에게 그렇게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일까? 어쩌면 암울했던 시대의 마지막 희생자였을 그들은 이제 햇살 가득한 거리를 마음껏 걸을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작은 소망 하나

남편과 마주앉아 아침밥을 먹으면서 나는 그만 국그릇에 눈물을 푹푹 빠뜨리고 말았다. 이렇게 밥상을 마주할 날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밥이 잘 넘어가지도 않는다. 남편은 여자들이 임신하면 감정이 예민해진다더니 당신도 그런가 보다고 짐짓 태연해 하지만 그 속마음이야 얼마나 첩첩산중이랴.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내년 푸르른 대지에 씨앗을 뿌리고 싶다. 김매고 거름주고 가을에는 풍성한 추수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내년 1월이면 태어날 우리아기가 아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크게 하고 싶지는 않다. 엄마 아빠의 사랑속에서 이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혼자 살겠다고 욕심부린 일 없고, 앞으로 살아갈 날과 모두가 잘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리니 누가 나의 이 작은 소망하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양군모

▶ 詩

여의도 농성장을 뒤로하며

석 응 희 (충북대 87)

6월의 거리에서
뜨거운 대지에서
땀배인 연대투쟁에서
경태의 죽음에서
연탄 한 장 없이 버티던 구석의 골방에서
이미 우리는 만나고 있었다.
사는 방식 꿈 굳이 가리지도 않았기에
반도 조국 청년임을 새삼 확인 할 때쯤이면
우린 이미 만나고 있었다.

쌓였던 응어리 희망의 결실로 맺자했던
두번의 대선 모두 패했고 실의에 빠져 있었다.
술로 비관으로 하루를 보낸날도 있었다.
나는 조국ियो 조국은 곧 나의 삶의 지표라고 믿어오던
꿈의 기둥이
폭력과 금.관권에 계략과 모의에 무너지던 날
한때는 군대란 억압으로 도망도 치고 싶었다.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은
오직 투쟁으로 나를 세우면서 일어서야만 했다.
나의 패배는 곧 옆사람의 좌절

삶자체는 이미 조국이 내게 부여한 것
투쟁의 무기를 놓고선 이미 삶을 잃은 것
일어서는 그 자체는 이미 승리의 시작이었다.
벌거벗은 상처투성이의 뒤흔힌 삶을 자초하는 것이었다.

1993.10 건국대 학생회관 인권위 사무실
스무 남짓의 양심수들에 의해
새로운 신화는 예고되고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늑순 칼 다시 갈고 무딘 날 다시 두드려야 할 텐데
양.군.모
잠긴 문을 박차고 막힌 통로 뚫어 버리자
지혜를 모으고 전망을 세우고 투쟁의 과녁향해
청년 패기의 힘모아 새로운 출발 ...

언젠가 넘어야 할 문민정부의 신기루
언젠간 벗겨야할 문민정부의 가면
단결된 힘을 모아
무덤덤한 가슴 맑은 순결로 닦은 올랐다
양군모라는 한 점으로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청와대 국회의원 문민 고위관료 만나
이런 건 해줘야 한다고 역설도 했다.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하던 양군모
내 다 해결해 줄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란 말 들을 뻔
설레임의 환상되어 눈 귀 멀기도 했다.

청원만으로 될 수 있다 믿었던 전술아닌 전술
수구세력의 저항에 물거품 되고
링위의 복서가 한방 맞은 듯
잠시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번의 실수로 이미 죽한 것